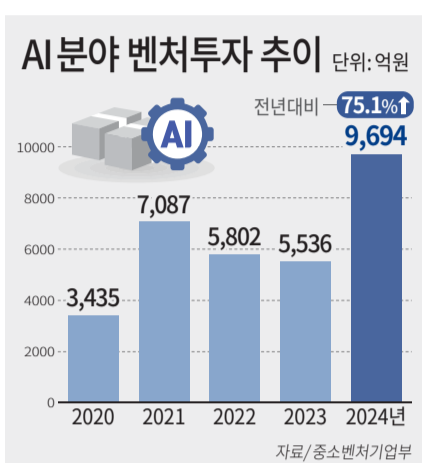


↑ 코스피 2334.23 (+6.03)	↑ 코스닥 658.45 (+7.15)
↑ 금리 (미국 9년) 2.420 (+0.015)	↑ 환율 (원-달러) 1476.35 (+8.55)

관세 쇼크에  
비트코인  
8만 달러 붕괴  
02

## 韓 AI 벤처투자 75% 늘었지만 美 등 경쟁국 대비 걸음마 수준

韓 작년 AI분야 벤처투자 9694억  
개발능력 상위지만 환경은 35위  
글로벌AI 100대 기업에 韓 전무  
미국 59곳, 중국 10곳, 영국 7곳



한국이인공지능(AI)을중심으로한  
미래 먹거리인 딥테크(Deep tech) 분  
야에서 미국, 중국 등 선발 경쟁국 대비  
투자나 환경이 한참 뒤쳐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투자시장 한파에도 딥  
테크에 돈이 몰리고 있지만 민간 투자  
만 놓고보면 미국과 비교해 약 50분의  
1, 중국의 약 6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  
다. '글로벌 AI 100대 기업'에 한국 기  
업은 단 한 곳도 없다. 미국은 59곳, 중  
국은 10곳, 영국은 7곳 등이 포함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8일 내놓은  
'2024년 딥테크 10대 분야 벤처투자 동  
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AI 분  
야 벤처투자는 9694억원(6억5815만달  
러)으로 전년의 5536억원보다 75.1%  
급증했다. AI 분야에는 딥테크 10대 분  
야 중 전년대 비교해 가장 많은 4158억  
원의 투자금이 집중됐다. AI에 대한 벤  
처투자는 2020년 당시 3435억원에서  
2021년 7087억원, 2022년 5802억원을  
각각 기록하다 지난해 최고치를 갈아  
치웠다.

AI 분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  
난해 1655억원이 몰린 'AI 연산·처리  
부품/장치 제조·설계'가 전년(423억

원)보다 무려 290.9% 늘었다. 또 'AI  
구축·관리, 관련 정보 서비스'도 3880  
억원이 집중되며 전년(1814억원)에 비  
해 113.9% 증가했다. 전체 투자금 가운  
데 가장 많은 돈을 유치한 분야는 'AI  
SW 개발 및 공급'(6605억원)이었다.  
2023년도에는 4731억원으로 1년새  
39.6% 늘었다.

하지만 경쟁국 대비 투자가 절대적  
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이 발간한 '2024년  
인공지능 글로벌 트렌드' 자료에 따르  
면 2023년 기준 민간의 AI 투자 규모는  
총 960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미국이 672억 달러로 중국(78억 달러),  
영국(38억 달러) 등을 압도적으로 앞섰  
다. 13억9000만 달러가 투자된 한국은  
이스라엘, 캐나다, 독일, 인도, 프랑스  
에 이어 9위에 머물렀다.

정부와 민간의 투자를 합한 금액도

마찬가지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이 지난해 발간한 '글로벌 정부·  
민간 분야 AI 투자 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미국(874억  
1000만 달러), 유럽연합(134억9000만  
달러), 중국(112억8000만 달러), 영국  
(72억 달러), 일본(34억4000만 달러),  
캐나다(34억2000만 달러) 등에서 AI  
투자가 두드러졌다. 한국은 일본과 캐  
나다보다 뒤쳐졌다.

국회도서관이 지난해 말 발간한 'T  
HE 현안-글로벌 AI 기업 지형도' 인  
포그래픽을 살펴보면 글로벌 AI 100대  
기업 가운데 한국 기업은 '제로'다.

일본(사카나AI), 대만(퍼펙트), 아  
랍에미리트(TII), 오스트레일리아(켄  
바), 사우디아라비아(SCAI), 이탈리  
아(SpazioDati Srl)가 100대 기업에  
하나씩 이름을 올렸을 뿐이다.

수출입은행이 영국의 토터스미디어  
(Tortoise Media)를 인용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AI 사업 환경은 전  
세계에서 35위, 상용화 수준은 12위, 인  
재는 13위에 각각 머무르고 있다. 그나  
마 개발능력(3위), 정부전략(4위)이  
상위에 올라있다.

한편 중기부 집계 결과 AI를 포함해  
시스템반도체, 로봇 등 '딥테크(Deep  
tech)' 분야에 지난해 몰린 벤처투자금  
은 총 3조6324억원이었다. 이는 전년대  
보다 33.7% 증가한 수치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원달러 환율 증가, 금융위기 이후 최고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스마  
트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  
다.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6.03포인트(0.26%) 오른 2334.23에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15포인트(1.10%) 상승한 658.45,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4원 오른  
1473.2원에 마감했다. 원화값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최저치다. /뉴시스

## 삼성전자, 1분기 실적 기대이상 갤S25 덕에 6.6조 깜짝 영업이익

스마트폰 흥행·메모리 출하 증가  
매출 79조... 분기기준 역대 최고

삼성전자가올해1분기6조6000억원  
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시장 기대치  
를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급 실적을  
거뿜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S  
25' 시리즈의 흥행과 메모리 출하 증가  
가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잠정 실적 공시를 통해  
올해 1분기(1~3월) 연결 기준 매출 79  
조원, 영업이익 6조6000억원을 기록했  
다고 8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84% 증가  
하며 1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  
다. 영업이익은 0.15% 소폭 감소하며  
사실상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4.24%, 영업  
이익은 1.69% 늘었다. 이번 실적은 금  
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최근 집계  
한 영업이익 컨센서스 4조9600억원을  
크게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로 평가  
된다.

사업 부문별 세부 실적은 아직 공개  
되지 않았지만, 업계는 모바일경험(M  
X) 부문의 영업이익이 약 4조4000억원  
에 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월 출시  
된 갤럭시S25 시리즈가 미국과 중남미  
등에서 흥행하며 스마트폰 실적을 끌  
어올렸고, 미국의 관세 정책 우려로 인  
한 선주문 수요 증가도 실적 개선에 기  
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영향으로 디스  
플레이, 가전 부문까지 동반 호조를 보  
였다는 평가다.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  
(DS) 부문은 범용 메모리 수요 회복과  
중국의 소비 진작책 '이구환신'(노후  
가전 교체 보조금) 효과로 출하가 확대  
됐다. 메모리 가격 회복세도 실적에 긍  
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  
만 시스템반도체는 고객 유치 부진으  
로 공장 가동률이 낮아지며 약 2조원  
규모의 영업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  
다. 반도체 전체 영업이익은 약 1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1분기를 저  
점으로 삼아 2분기부터 본격적인 반등  
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고대역  
폭메모리(HBM)를 중심으로 한 AI 반  
도체 수요 확대가 하반기 실적을 끌어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 부문을  
총괄하는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빠르면 2분기 중  
HBM3E 12단 제품을 양산할 것"이라  
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대외 변수도 존재한다. 미국 정  
부가 베트남과 멕시코 등 생산지에서  
서 제조된 스마트폰과 가전에 고율의  
관세를 예고하면서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갤럭시 스마트폰의 절반  
이상이 베트남에서, 가전의 상당수가  
멕시코에서 생산되고 있어 실적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에서는 이번 1분기 실적 호조가  
관세 이슈에 따른 일시적 선주문 효과  
라는 분석도 있다.

/이혜민 기자 hyem@

## 경상수지 흑자 행진... "내달부터 관세 영향"

2월 경상수지 71.8억 달러 기록  
車·정보통신기기 중심 수출 증가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22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수출과 수입이  
모두 증가했지만, 수출이 더 크게 늘어  
난 영향이다. 수출은 반도체가 감소했  
지만, 승용차·정보통신기기 등을 중심  
으로 증가했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월 경  
상수지는 71억8000만 달러 흑자였다.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지난 2023년 5월  
부터 22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  
고 있다.

경상수지는 국가가 외국과의 거래에  
서 벌어들인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뜻  
하는 것으로 한 나라의 기초체력을 나

타낸다. 지표로 크게 ▲상품수지 ▲서  
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  
수지로 구성한다.

2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보면 상품  
수지는 81억8000만 달러 흑자로, 한달  
전 25억 달러와 비교해 흑자 폭이 확대  
됐다. 수출은 537억9000만 달러로 1년  
전과 비교해 3.6% 증가했고, 수입은  
456억1000만 달러로 1.3% 증가한 영향  
이다.

송재창 금융통계부장은 "반도체 수  
출이 일시적 감소했지만, IT품목의 수  
출이 지속됐다"며 "BIT 품목의 수출도  
늘어나며 흑자 흐름을 지속했다"고 말  
했다.

서비스수지는 32억1000만 달러 적자  
로 집계돼 적자 규모가 전월(-20억

6000만 달러)보다 확대됐다. 서비스 수  
지 중 여행수지는 겨울방학 해외여행  
성수기가 종료되고, 1월 설 장기 연휴  
의 기저효과 등으로 출국자 수가 줄어  
들며 같은 기간 16억8000만 달러에서  
14억5000만 달러로 적자폭이 줄었다.

한편 이날 송 부장은 미국 트럼프 정  
부의 관세정책 영향은 4월이 되어서야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3월 상  
품(수출·수입) 수지의 흐름을 보면 아  
직까지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트럼프 정부에서 3월 철강·알루미늄  
관세, 4월 상호관세, 5월 자동차·부품  
관세 등을 내놓고 있는 만큼 4월부터  
글로벌 무역이 둔화하고, 대(對)중 수  
출이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 진성준, '계엄피해구제 특별법' 발의... "국민 트라우마 등 치료 지원" /사진 뉴시스
- ▲ 우원식 국회의장, 韓 재판관 지명에 "인사청문 회 요청 안받는다"

- ▲ 안철수, 4번째 대권 도전... "이재명 이길 후보 선택해달라"
- ▲ 국민의힘, 이재명에 "말 바꾸지 말고 3년전 개헌 약속 지켜라"

- ▲ 한덕수 기습에 당한 민주당... "내란 세력 현재 장악 시도"
- ▲ 민주당 "韓 대행의 이완규·함상훈 지명에... 권한쟁의·가처분 검토"

# ‘관세 쇼크’ 가상자산 시장 강타… 비트코인 8만 달러 붕괴

비트코인 7만9900달러 거래 전일 10% 급락, 3% 상승 일부만회 알트코인, 연중 최고가 대비 57% ↓ ‘관세전쟁’ 협상면 일부 회복 관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충격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8만 달러 선 아래로 내려간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쇼크’ 여파에 가상자산이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5일 보편관세 시행에 이어 오는 9일 ‘상호관세’ 시행을 앞두고 위험자산 투자가 위축된 모습이다.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 가격은 8만 달러 아래로 떨어져 트럼프 당선 이후 치솟았던 가격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8일 가상자산 시황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후 1시께 1BTC당 약 7만9900달러(1억1750만원)에 거래됐다. 전일 대비 3% 오른 수준이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 만에 10%가량 급락한 전일의 하락을 일부 만회하는데 그쳤다. 1월 22일 기록한 연중 최고가인 10만6100달러와 비교해선 24.7% 내려 트럼프 취임 이후 최저 수

준을 지속했다.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가상자산)의 하락은 더 두드러졌다. 이날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ETH)은 1587달러에 거래되며 연중 최고가 대비 57%의 하락을 기록했고, 시총 3위인 리플은 1.90달러에 거래돼 42% 하락을 기록했다.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한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 공표한 보편관세·상호관세가 지체없이 시행될 것이란 전망에 세계적으로 위험자산 선호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이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관세’와 대(對)미 무

역 흑자가 많은 25개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했다. 보편관세는 지난 5일 발효됐고, 상호관세는 9일부터 부과된다.

보편관세 시행 이후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유예하고 협상에 나설 것이라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트럼프가 관세보다 앞선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뜻을 밝으면서 위험자산이 급락했다. 지난 7일 하루 동안 코스피는 5.25%, 일본 닛케이 지수는 7.76% 내렸고, 유럽 증시도 4~5%대 하락을 기록했다.

트럼프는 지난 6일(현지시간) “중국과 EU를 비롯한 다른 국가와의 무역 적자를 해결하고 싶다”면서 “증시를 비롯한 어떤 것도 하락하길 원치 않지만, 때때로는 무엇인가를 고치기 위해 약을 먹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관세보다 앞선 협상은 없을 것이라 강조했지만, 사후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다. 협상 조건으로는 대(對)미 수입 확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시장에서는 ‘관세 전쟁’이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면 위험자산 선호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관측했다.

트럼프는 관세의 협상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관세는 영구 조치될 수도 있고, 동시에 협상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면서 “미국에는 관세 외에도 필요한 것들이 있다. 외국이 단았던 무역 국경을 개방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일본, 유럽연합(EU)과의 협상에 돌입했다. 앞서 미국은 일본에 24%, EU에 20%의 상호관세를 예고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트럼프와 무역장벽 완화를 조건으로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EU도 주류 등에 대한 보복관세 예고를 철회하고,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대한 무역 장벽 완화를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가상시장업계 관계자는 “트럼프가 일부 국가에 관세를 90일간 유예할 것이라는 소식이 가상자산 가격이 잠시 반등했지만, 오보라는 소식이 가격이 다시 하락 전환했다”라면서 “향후 관세 협상 추이에 따라 가격도 일부 회복될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 바람직”

한국은행, 고령층 계속 근로 방안 고용률 유지엔 10년간 노동 141만명 ↓ 정년연장에 9년간 청년고용 6.9% ↓

고령층 근로자 1명의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층 근로자 0.4~1.5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의 임금이 하락하더라도 여전히 임금 수준이 높아, 기업들이 청년층 채용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령층과 청년층이 효율적으로 노동시장에 존재하기 위해선 고령층의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 근로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한은 조사국 고용연구팀과 김대일 서울대학교 교수가 연구했다.

이날 보고서는 성·연령별 고용률을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향후 10년간 노동 공급(임금 근로자 기준) 규모가 141만명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향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이 3.3%(연 0.33%) 감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정년연장…청년층 고용률 6.9% ↓  
보고서는 고령층의 노동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년 연장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정년 연장을 도입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55~59세 임금근로자를 분석한 결과 임금근로자 고용률은 1.8%포인트(약 8만명), 상용근로자 고용률은 2.3%포인트(약 10만명) 증가했다.

다만 고령층 고용 증가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했다. 임금근로자 고령층 증가폭은 2016~2019년 2.3%포인트(p) 증가한 뒤 2020~2024년 1.3%p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정년 연장은 청년층 고용률도 감소시켰다.

2016부터 2024년까지 청년층 임금근로자 고용률은 정년 연장으로 인해 6.9%(약 11만명) 감소했고, 상용직 고용률은 3.3%(4만명) 줄었다. 고령층 근로자 1명이 증가할 경우 청년층 근로자 0.4~1.5명이 감소한 것이다.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조정이 용이한 신규 채용을

줄이면서 청년층 고용이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 퇴직 후 재고용, 임금 조정 필요  
보고서는 정년 연장보다 정년퇴직 이후 임금체계 개편에 따라 재고용하는 것이 노동 시장에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뒤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해 다시 고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근로조건을 유연하게 조정해 고령층이 계속 근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보고서는 이같은 방안으로 65세까지 계속근로가 가능할 경우 향후 10년간 성장률은 0.9~1.4%p(연 0.1%p)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의 3분의 1 정도는 막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근로자 개인 측면에서도 65세까지 계속 근로하게 되면 기존 소득 공백 기간(60~64세) 동안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보다 월 소득이 179만원 증가하고, 65세 이후 연금 수령액도 월 14만원 증가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 야권 “권한대행의 임명, 헌법 유린”

한덕수, 마은혁 재판관 임명

재판관 후임 이안규·함상훈 지명 마은혁 미임명 관련 ‘위헌’ 40일 만 민주당 “韓, 스스로 탄핵 유도하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관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안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이날 지명했다. ‘권한대행’이 대통령직인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상황이라 야권에서는 강력 반발했다.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마친 마은혁 후보자는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한 권한대행의 결정은 현재가 지난 2월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지 40일만에 이뤄졌다. 그간 야권에서는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현재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며 강력 비판해왔다.

대신 한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통령직’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지명했다. 정부적으로 해석하면 마은혁 헌법재

판관 임명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발을 막기 위해 나머지 2명을 함께 지명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헌법에 부합하는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통령 직의 지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박한철 헌재소장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았다.

게다가 이안규 법제처장은 12·3비상계엄 사태 이후 ‘안가 회동’을 갖고 휴대폰을 교체한 것으로 드러나, 더불어 민주당 법률위원회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의 결정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윤종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스스로 탄핵을 유도하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한 달 넘게 임명하지 않았던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동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사람 2명을, 논란이 많은 인사들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 유린”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처분 신청과 같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 syj@

## 소매시장 경기전망지수 4분기 연속 하락

대한상의, 2분기 RBSI 조사

소매시장 체감경기가 갈수록 악화되고 우리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경고등이 켜지면서 내수시장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발표한 ‘2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조사 결과에서 전망치가 ‘7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분기(77)보다

2포인트(p) 하락한 수치이며 4분기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유통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한상의는 체감경기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미국의 통상정책 불확실성, 고물가, 경기하방 우려, 정치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있다. 대내외적 약세가 겹치면서 소비시장 부진 장기화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유통기업들은 올해 경영실적에 영향을 미칠 주요 요인으로 고물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64.0%), 국내정치 불확실성(39.2%), 운영비용 부담 증가(36.8%), 미국통상정책(16.8%) 등을 꼽았다.

소비시장 회복 시점에 대한 전망도 어둡다. 응답 기업의 절반 가까이(49.8%)가 2026년 이후에나 소비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2028년 이후를 전망한 기업도 16.0%에 달해 상당수 기업들이 소비 부진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용 기자 lsy2665@

# 나라살림 104.8兆 적자... “취약층 복지 등 민생지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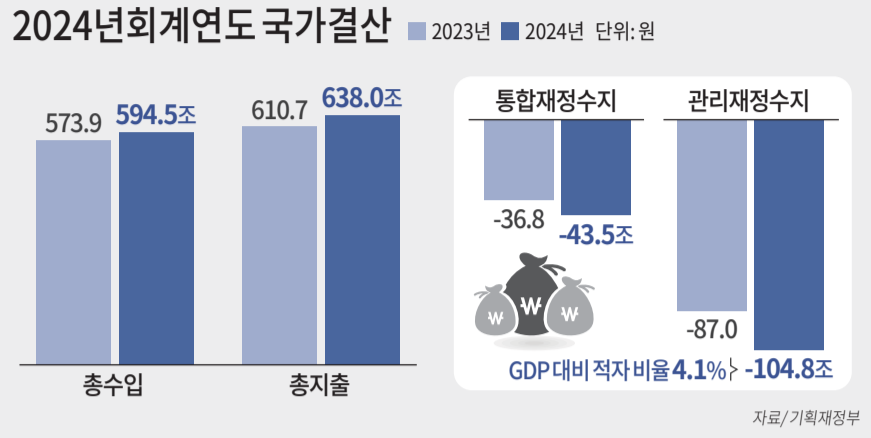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총수입 594.5조, 총지출 638조 GDP 대비 적자규모 4% 웃돌아 기재부 “국가채무, 전년보다 줄어”

지난해 실질적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섰다.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의 적자다. 나라살림 적자는 지난 2022년 100조 원대에 달한 뒤 2023년에 80조 원대로 줄었으나 2024년에 다시 늘었다.

정부는 경기 둔화·침체 상황에서도 취약층 복지 포함한 민생 지출을 유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은 전년에 비해 20조5000억 원 증가한 594조5000억



원, 총지출은 27조3000억 원 증가한 638조 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5000억 원 적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7% 규모였다.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8000억 원 적자였다. 코로나19 당시인 2020년(-112조 원)과 2022년(-117조 원)에 이어 3번째로 큰

규모다.

박봉용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불어난 것과 관련해 “세입이 감소했음에도 민생 관련 지출을 최대한 유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재정)수지는 세입 결손을 그대로 사업비 불용(쓰지 않은 예산)으로 연결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악화했지만,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나타내는 국가채무

(1175조2000억 원)는 오히려 전년보다 줄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수익에서 30조8000억 원이 핑크가 났는데 정부가 실질적으로 돈을 쓰지 않은 규모는 15조 원이 안 된다”고도 했다. 이어 “그래서 재정수지 적자가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고, 국채를 발행해서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4.1%에 달했다. 이 수치는 2022년 5.0%에서 2023년 3.6%까지 내려왔으나 다시 4%대로 진입했다.

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취임 이후 ‘재정준칙’을 국정운영의 원칙으로 내세운 바 있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통제하는 것이 골자다. 나라살림살이는 2019년(2.7%) 이후 매년 이 수치를 초과해 왔다.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1175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GDP 대비 46.1%로 전년대비 0.8%포인트(p) 줄었다.

작년 총세입 중 국세수입(336조5000억 원)은 법인세 감소(-17조9000억 원) 등의 영향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과 비교해 7조5000억 원 줄었다. 2024년 세입 예산에서 계획했던 액수(367조3000억 원)에 비해서는 30조8000억 원이나 세금이 덜 걷혔다. 반면 세외수입(199조4000억 원)은 2023년 결산 대비 46조5000억 원 늘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4조5000억 원)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 원이었다. 정부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4000억 원은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등에 활용하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1조6000억 원은 특별회계 자체 세입 등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정산대금 지연 수면위로 유통업계, 책임소재 공방

### 기업회생 후폭풍

홈플러스 “일방적 납품 중단 영향” 농축산업체 “책임 전가하려 무리수”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정산 대금 지연 문제로 농축산 납품업체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홈플러스가 납품 계약을 재개하지 않는 일부 대기업 협력사 및 관련 단체를 향해 2차 농가 피해 책임을 묻자, 이에 농업인단체는 홈플러스가 적반하장 논리를 펼치고 있다며 전면 반박에 나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이후 농축산 납품 업체와의 갈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홈플러스가 자사와 납품 재개를 하지 않는 기업 및 단체를 직접 언급하는, 강경한 입장문을 내면서다.

홈플러스는 지난 7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3일, 22개 농축산단체들로 구성된 한국농축산연합회가 홈플러스의 대금 정산이 지연되면서 농축산물을 유통하는 농축산업계 피해가 커지고 있다라는 성명을 발표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농축산업계 피해가 커진 책임은 자사와 납품 재개를 하지 않고 있는 대기업 협력사 및 단체에 있다는 것이다.

홈플러스 측은 “서울우유 등 소수의 일부 대기업 협력사가 회생채권 전액 즉각 변제, 물품 대금 현금 선납 조건을 요구하며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거래 규모를 축소했다”며 “이는 일부 대기업과 주요 이해단체들이 정상화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자신의 뒷만 챙기려는 ‘비오는 날 우산 뺏기’ 식의 무리한 요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농축산물 관련 대형 협력사의 경우 영세한 2차 협력사 또는 농축산 농가들이 제품의 원료를 공급하

는 경우가 많은데, 1차 협력사가 갑작스럽게 물품 공급을 중단하면서 납품량이 줄어드는 등 그 피해가 2차 협력사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농협경제지주를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농협경제지주는 변제하지 않은 미지급 회생채권이 없고 모든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음에도 단순히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채권 한도를 대폭 축소하였다”며 “지역단위 농협 중 상당수가 거래가 중단되거나 축소됨에 따라 많은 쌀 농가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농축산연합회는 곧바로 성명문을 내고 홈플러스가 책임을 전가하려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축산연합회는 “홈플러스가 농협경제지주, 서울우유협동조합 등 농축산업계에서 일방적으로 납품을 중단해 2차 협력사와 농가들의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난데없이 연합회의 전향적인 결정을 요구했다”며 “여론의 화살을 농축산업계에 돌리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홈플러스의 적반하장은 소도 웃을 일”이라며 “홈플러스는 지금이라도 농축산업계 피해에 대해 전국 농업인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운영 정상화를 위한 이행 조치를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통업계 내에서도 홈플러스가 무리한 주장으로 사태를 악화시킨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본인들과 납품을 재개하지 않는 기업이나 단체에 강경하게 나올 입장은 아닌 것 같다”면서 “지금 상황에서 갈등을 조장해 좋을 것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 사람, 그곳에 DB의 꿈이 있다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보험을 만드는 꿈  
 고객의 내일이 풍요로워지는 금융을 만드는 꿈  
 인류의 미래를 위한 기술을 만드는 꿈

### DB 모두의 마음 속엔 꿈이 있습니다

보험	금융	반도체 · IT

# “中 선박 피하자”… K-조선, 글로벌 ‘수주 블루칩’ 부상

美, 中 건조선박 최대 22억 수주료 엑스모빌·마리나키스發 발주 이동 HD현대, 2.3조대 컨선 수주 압박 한화오션, 유조선 2척 반사이익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산 선박에 항만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글로벌 선주들의 선박 발주 방향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중국 조선업 봉쇄기조에 따라 중국산 선박을 기피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조선사들이 대체 수혜처로 부각되는 모습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는 그리스 해운사와 2조 3000억원 규모의 수주를 논의하고 있다. 현재 건조의향서(LOI)를 체결한 단계다. 업계에서는 미국 정부의 대중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선주들이 중국을 대신해 한국 조선소로 발주처를 바꾸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우리 기업이 수주 확대 등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 분석이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HD현대중공업

따른다.

그리스 선주 에반겔로스 마리나키스의 캐피탈 마리타임은 HD현대삼호, HD현대미포와 20척 규모의 수주 계약을 논의 중이다. HD현대삼호에는 8800TEU(1TEU=20피트 컨테이너1개)급 LNG이중연료 컨테이너 6척을, HD현대미포에 2800TEU급 컨테이너선 8척, 1800TEU급 6척을 발주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31일 한화오션이 수주한 초대형 유조선(VLCC) 2척 또한 에반겔로스 마리나키스 발주였다. 미국과 거래가 많은 기업 입장에서 중국산 선박을 운용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의식해 중국 조선사를 배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는 지난 2월 중국 건조선박에 대해 최대 150만달러(약 22억원) 항만 수수료를 부과하려는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국 조선업을 부활시키겠다는 취지에서다. 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에는 최대 100만달러(약 14억원), 중국 건조 선박을 보유한 선사들의 모든 선박에는 50만~100만달러(약 7억~14억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앞서 미국의 중국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 정책 발표 이후 미국 기업이 중국 선박 발주를 취소하는 첫 사례도 나왔다. 미국 에너지 기업 엑스모빌은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 예정이었던 액화천연가스(LNG)병커링선 신규 계약을 보류한 바 있다.

엑스모빌은 지난 2월 중국 조선소를 통해 2만㎡급 LNG병커링선 2척을 건조할 슬롯을 확보하며 공식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엑스모빌은 공식 입찰을 끝내 보류했다. 업계에서는 엑스모빌이 발주를 보류한 선박이

한국 조선소에서도 충분히 건조할 수 있는 선종인 만큼 국내 조선사에 물량이 넘어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달에는 한국이 중국보다 수주량에서 우위를 점하며 강세를 보이기도 했다. 영국 조선해운시황 전문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3월 전 세계 선박 수주량은 150만CGT(58척)으로 집계됐다. 한국이 82만CGT(17척, 55%), 중국은 52만CGT(31척, 35%)를 수주했다. 단순히 척수만 보면 중국이 많아 보이지만 선박의 크기와 부가가치를 반영한 CGT 기준으로는 한국이 앞서고 있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HD현대의 그리스 해운사 수주 건은 아직 계약이 최종 확정된 단계는 아니며 발주 배경 역시 조선사 내부에서도 명확히 파악된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미국의 대중 정책 변화 이후 글로벌 선주들의 발주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에 업계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 ‘살아있는 지능 시대’… 자율적 판단 등 진화하는 ‘LI’ 뜬다

(리빙 인텔리전스)

도구 아닌 문명 주체로 발전  
감지·학습·적응·진화 수행  
맞춤형 AI, 행동까지 예측

“기술이 인간을 닮아가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 기술은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돼가고 있다.” 자동화와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췄던 기술의 진화가 인간처럼 사고하고 적응하며 진화하는 지능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미국 경영 컨설팅업체 ‘퓨처 투데이 전략 그룹(FTSG)’은 최근 발간한 ‘2025 테크 트렌드 리포트’에서 차세대 기술 패러다임으로 ‘리빙 인텔리전스(LI·Living Intelligence)’를 제

시하며, 기술이 단순한 도구가 아닌 문명을 바꾸는 주체로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LI는 스스로 감지하고 학습하며, 변화에 적응하고 진화하는 자율 지능 시스템을 의미한다. AI(인공지능)뿐 아니라 생명공학, 신경과학, 나노기술 등 다양한 첨단 테크놀로지가 융합돼 사람처럼 판단하고 상황에 따라 반응하며, 스스로 진화해 나간다는 게 특징이다. 인간의 명령을 따르는 기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람처럼 변화하는 환경에 반응하며 실시간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고 상황에 맞춰 진화하는 지능 시스템으로 발전한 것.

보고서는 이를 “우리가 기술을 통제

하는 시대에서, 기술이 우리와 함께 판단하는 시대로의 이동”이라고 해석하며, LI 기술이 앞으로 도시 인프라, 헬스케어, 교육 등 사회 전반에 거대한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제조업에서는 AI와 센서를 활용해 생산 공정을 스스로 감지하고 판단해 자동으로 최적화하는 ‘자율 조정형 생산 시스템’이 적용되기 시작했고, 헬스케어에서는 AI 기반 실시간 바이오 모니터링, 유통업에서는 고객 반응에 즉각 반응하는 스마트 환경이 현실화되고 있다.

보고서는 LI를 구현할 핵심 기술로 ‘거대 행동 모델(LAM·Large Action Model)’과 ‘개인화된 행동 모델(PLA

M·Personal Large Action Model)’를 꼽았다.

LAM은 언어 처리 중심의 기존 AI 모델을 넘어 마우스 클릭, 텍스트 입력, 화면 탐색 등 실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LAM 개발을 위해 총 7만6000개의 작업-계획(task-plan) 데이터를 수집해 학습시켰고, 이 중 가장 효율적으로 실행된 2000개의 행동 시퀀스만을 추려내 모델 훈련에 최종 활용함으로써 실행 성능을 극대화했다.

PLAM은 이러한 행동 모델을 사용자의 생체 정보, 일정, 위치, 온라인 기록 등 개인화된 데이터에 기반해 맞춤형한 형태다. 예컨대 사용자의 스트레

스 수준을 인지하고 회의를 재조정하거나, 식습관과 생체 데이터를 바탕으로 식단을 추천하고 주문까지 할 수 있다.

이는 AI가 인간의 결정 패턴을 완전히 내재화해 진화된 형태로, LI는 사용자의 삶에 깊이 통합된 ‘디지털 분신’ 역할을 하게 된다. 시간이 갈수록 사용자의 결정 패턴을 학습해 결국 ‘당신이 라면 어떤 선택을 할지’ 예측하고 실행하는 AI가 되는 것이다.

보고서는 “앞으로 5년간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인류 문명의 장기적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며 기술이 미래를 바꾸는 게 아닌 그 기술을 어떻게 선택하고 쓰느냐가 진짜 미래를 만든다고 조언한다.

/김현정 기자 hjk1@

## 되살아난 원전 생태계… 尹 파면에 다시 ‘불확실성’

SMR·체코 원전 등 수출 변수 부각  
업계 “정책 연속성 확보 절실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윤 정부에서 추진해 온 원자력 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재검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활기를 되찾고 있던 원전 생태계가 다시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따르는 모습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확정된 지 두 달 만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변수가 발생했다. 제11차 전기본을 통해 원전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련 산업의 회복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기대됐으나 향후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수정될 여지가 생긴 셈이다.

당시 계획 확정안에는 신규 대형원전

(2기) 및 SMR(1기)을 건설하는 안이 포함됐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 비중을 오는 2038년 70.7%까지 확대하도록 설계했으며 구체적으로 2038년 원전 발전 비중은 35%, 재생에너지는 29%이다.

산업계 역시 원전 사업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었다. HD현대와 두산에너지는 미국 소형모듈원자로(SMR)개발 기업 테라파워와 손잡고 SMR 사업 확대에 대거 나서고 있다. 설비 개발 및 제작에 뛰어들면서 한·미원전 동맹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분위기다. HD현대는 테라파워로부터 원통형 원자로 용기 제작 프로젝트를 수주했으며 두산에너지는 테라파워와 SMR 주기기 제작성 검토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도 국내 원전 산업의 수출 활로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체코 정부는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을 주축으로 한 ‘팀코리아’를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두산에너지도 주기기 제작을 위한 본격 계약 체결 이후 본격 사업 준비에 착수했다. 다만 당초 협상이 지난 3월 중 마무리될 전망이었으나 일정이 다소 지연되면서 업계에서는 4월 중순과 5월 중으로 끝맺음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정치 상황 변화가 변수로 작용했다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온다.

다만 두산에너지는 체코 원전 수주와는 별개로 주기기 경쟁력을 바탕으로 유럽 등 주요국의 원전 시장에서 수익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특히 원자력을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산업통상자원부

제외하고도 가스터빈, 풍력 사업 포트폴리오를 활용해 입지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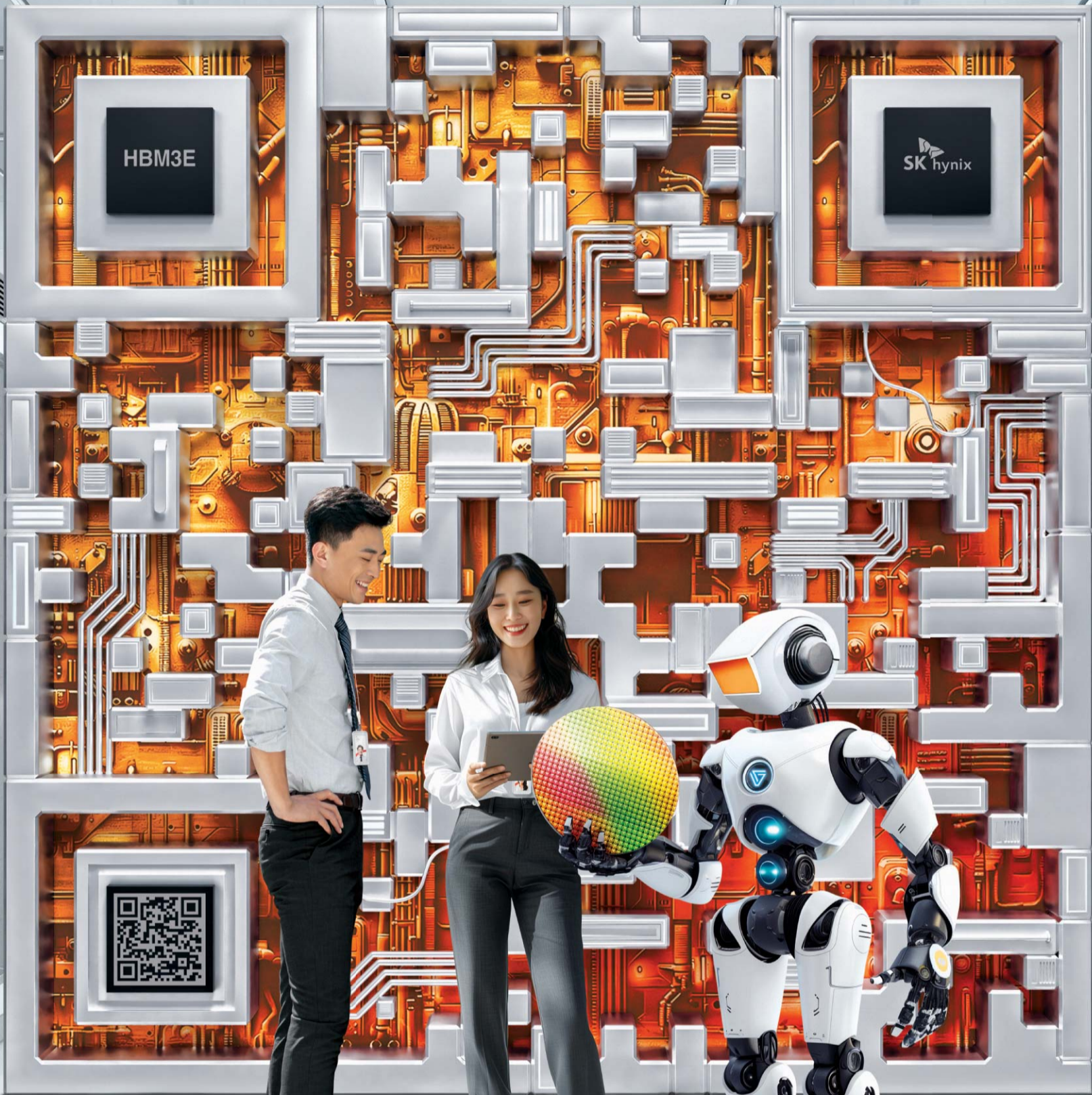
일각에서는 향후 정권 성향에 따라 에너지업계의 희비가 엇갈릴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진보 정당 집권 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이에 한화솔루션, OCI홀딩스 등 관련 기업에 기회가 열릴 수 있을 것이

라는 긍정적인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원자력 산업에 대한 정책 기조가 긍정적으로 전환되면서 업계 전반에 기대감이 형성됐던 건 사실”이라며 “다만 이번 정국 변화가 당장 사업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위의 QR코드를 찍어보세요  
SK하이닉스가 만드는 미래 AI 세상이 펼쳐집니다

# AI와 미래를 잇는 코드 SK하이닉스로부터

미래 AI 인프라의 핵심, 글로벌 No.1 AI 메모리 기업

We Do Technology | SK hynix

## 조기대선 레이스 본격화

이재명, 오늘 당대표직 사퇴

## ‘민생우선’ 중심 행보 전망

마지막 최고위원회의 주제 뒤 당직 정리  
계파 아우르는 당내 경선 캠프 꾸릴 듯  
늦어도 내주 출마선언 이뤄질 것으로 예상

조기 대선 정국 속 유력한 대권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 대권 도전을 앞두고 당직을 정리하는 것으로, 대선 출마 선언은 당무위원회 등을 거쳐 당 대표직 사퇴가 수리된 이후 별도로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8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9일 오전 마지막으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당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6월 3일을 대선일로 발표하면서 조기 대선 시간표가 정해짐에 따라 대선 출마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 지지도 선두를 달리면서도 자신의 출마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아껴 왔다.

조기 대선이 공식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권 도전을 거론할 경우 자칫 오만한 모습으로 비치면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대선 날짜가 나온 만큼 이 대표는 그간의 구상을 토대로 대선 준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직후 당내 경선 캠프 인선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강훈식 의원이 각각 선대위원장과 총괄본부장을 맡을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한병도·박수현 의원의 합류도 기정사실로 여겨진다.

계파를 아우르는 캠프를 꾸려 ‘이재명 일극 체제’라는 비판을 불식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친명(친이재명)계 상당수가 이미 당직을 맡고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위기 상황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다. /뉴스1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경선 캠프가 발족하고 나면 대선 출마 선언 시점을 조율하고 출마선언문에 담을 메시지를 가다듬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늦어도 다음 주에는 출마 선언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출마선언문에는 이 대표가 강조해 왔던 ‘민생우선’ 기조 등이 비중 있게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와 가까운 한 중진 의원은 “비상계엄 여파에 더해 글로벌 경기 침체로 서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어려워진 만큼 이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출마 선언 장소로는 국회를 포함해 복수의 선택지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김문수, 고용부 장관직 사퇴

## “국민들이 원해 출마 결심”

“국란 극복하고 힘모으는 데 함께할 것”  
국민의힘 입당 계획엔 “상의해야”  
尹 복귀 바랐는데 파면 돼 안타까워

보수 진영 대선 후보군 중 선두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8일 장관직을 사퇴했다.

노동부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마친 후 장관직 사의를 표하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퇴임식을 가졌다.

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선 출마 의사도 밝혔다. 김 장관은 ‘대선에 출마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단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김 장관은 여론 대선주자 중 선두에 있었지만,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왔다.

이어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를 두고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제가 아는 분도 원하고 있고 국가적으로 어려워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껴 사의를 표명하고 출마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가적으로 매우 위기인 국란이라고 보는데 그 때문에 경제도 어렵고 국민들도 굉장히 힘들어 국태민안을 위해 온 정치권과 모든 국민이 단결해서, 국란을 극복하고 나라보다 더 발전할 수 있게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도 거기에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식 출마 선언 시점에 대해서는 “내일쯤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 입당 계획과 관련해선 “그 부분은 좀 상의를 하고 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 대권후보 중 지지율 1위를 보



보수 대권 잠룡 중 한 명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이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제 뜻이 아닌 국민들의 뜻”이라며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정치 현실과 국민들의 답답함이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경쟁 상대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다. 제가 도지사할 때 성남시장했고 제가 성남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대표와 돌아가신 형님, 형수님 다 잘 알고 있다”며 “제가 아는 것 이상으로 국민들께서 잘 느끼고 계실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복귀되기를 바랐는데 파면돼 매우 안타깝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선거날짜가 결의됐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

## “대선·개헌 동시투표, 사실상 불가능”

민주당 회동 불참으로 양당 합의 못해  
국민투표, 현재서 ‘한정 위헌’ 판결  
최소한 오는 15일까지 개정해야

조기 대선과 함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개헌 동시투표 이슈가 좌초될 위기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6.3 대통령 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라는 말을 한다.

국민의힘은 8일 오전 “권성동 원내대표의 국회의장 및 양당 원내대표 회동 일정이 더불어민주당 측의 일방적인 불참 통보로 인해 전면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이 취소된 것은 민주당 측에서 ‘대선·개헌 동시투표’ 주장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서다.

개헌 절차는 대통령이나 국회 재적인원 과반수의 발의로 시작된다. 개헌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정족수는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이다. 의결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일단 법이 발의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헌법재판소 등 다른 헌법기관을 거치지 않는다.

그런데 이걸 이루려면 현실적으로 커

다란 벽을 넘어야 한다.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절대 지지가 필요하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여권의 협조를 전제로 한 것이다.

하지만 각 당의 입장차가 선명한 상황이라서 여야 합의안 마련조차도 어렵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6일 대선·개헌 동시투표를 제안한 뒤 국민의힘은 7일 여기에 찬성했지만, 유력 대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동을 걸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 내란극복이 훨씬 중요하다. 이것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선을 그었다.

대신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요건 강화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되면 곧바로 처리하겠다는 게 이 대표의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이 대표와 민주당이 개헌에 미적지근하다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국민투표법은 지난 2014년 7월2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한정 위헌 판결을 받아, 현행법상 국민투표를 시행할 수 없다. 현재가 국민투표법이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2015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라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는 아직까지 해당 부분을 개정하지 않았다.

이때문에 대선일인 오는 6월3일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최소한 오는 15일까지 국민투표를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양당 원내대표 회동 불발로 4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오는 15일까지 국민투표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만일 각 정당이 합의해 개헌안을 만들더라도, ‘대선·개헌 동시투표’는 어려운 셈이다.

국민투표법이 개정되더라도 개헌안 합의가 쉬울지도 미지수다. 개헌의 시기와 방법, 범위를 놓고 양당의 견해차가 크다.

결국 큰 틀에서는 합의하더라도 각론에서 협상이 안 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서예진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오는 6월 3일’ 확정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회의 주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조기 대선이 실시되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6월3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확정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4월4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다”며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꺾이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직면하게 돼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하루속히 그간의 상처와 후유증을 치유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위로, 앞으로 도약하는 데 국민적 에너지를 한데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법 제68조2항 및 공직선거법 제35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꺾이 시 꺾이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대선 준비가 착수된 가운데 7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1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 배너가 설치되고 있다. /뉴스1

로부터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파면되면서, 60일째인 6월3일에 21대 대선이 치러지게 됐다.

앞서 2017년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19대 대선이 대통령 꺾이 60일째 되는 날인 같은 해 5월9일에 진행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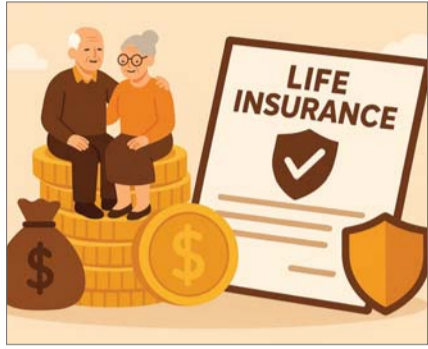
/서예진 기자



ANGELINUS

# “살아있을 때 쓸래요”... 평생보장 종신보험 중도 해지 속출

고령화 시대 노후소득 확보 과제 종신보험, 사망전 활용사례 늘어 목돈마련 저축성 강화 역할 전환 보험업계, 소비자 수요반영 기회



노후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종신보험 활용도 다양해질 전망이다. Chat GPT가 생성한 노후 소득과 종신보험 이미지.

기대수명 증가로 노후소득 중요성이 커지면서 종신보험의 역할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사망 전에 활용하는 방식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중도 해지 사례도 급증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0~60세 성인의 노후 소득 확보가 삶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2000년 남자 30세, 40세, 50세가 60세 전에 사망할 확률은 각각 15.2%, 14.4%, 9.6%였지만 2023년 6.5%, 5.8%, 4.1%로 떨어졌다. 여자는 각각 5.6%, 4.9%, 3.5%에서 3.1%, 2.6%, 1.

7%로 낮아졌다. 하다고 답변한 사람도 2014년 63%에서 2024년 57%로 집계돼 노후 소득에 대한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후 소득을 위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사망 전에 활용하는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기존 연금보험·변액보험에 추가로 종신보험을 선택해 사망보장 외 노후 재원 마련에 활용하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것.

종신보험은 매년 납내 함께 100만건 이상의 신계약이 판매되는 대표 상품이지만 지난 2008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1170만건이 중도 해지됐다.

업계에서는 종신보험 중도 해지의 원인으로 종신보험이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종신보험 계약자가 종신보험의 사망준비금을 연금이나 건강보장의 생존보장에 활용하려는 유인이 크다는 것. 실제로 보험소비자들은 종신보험의 보장성 기능과 함께 사망보험금을 위한 준비금의 활용에 관심

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이후 종신보험의 신계약 가입 금액은 2015년 7000만 원대까지 증가했지만 최근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평균 가입금액이 줄어드는 추세다. 2023년 평균 가입금액은 남성 3750만 원, 여성 3140만 원으로 감소했다. 이는 가구주의 사망보험금 자체를 축소하는 대신 저축성 기능을 강화해 연금이나 목돈마련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수요가 커졌다는 의미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고 신중한 가입이 요구되는데도 많은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종신보험이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종신보험 준비금은 사회환경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연금 재원 또는 장기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는 저축성이 강화되는 역할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도 종신보험의 사망

보험금을 노후 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14년 ‘보험혁신 및 건전화 방안’으로 연금 전환 특약 등을 활용해 사망보험금을 노후 소득의 재원으로 전환·활용이 추진된 바 있다. 올해 3월엔 금융위원회가 사망보험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종신보험 시장의 변화 및 정책적 움직임에 대해 보험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시장 변화와 함께 소비자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란 평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종신보험의 활용도가 사망 보장에만 집중돼 있으면 시대적 흐름에서 소비자 수요와 동떨어질 수 있다”며 “활용 범위가 넓어졌다는 측면에서 종신보험이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 ‘딱 닫힌 지갑 열어라’... 카드사들, 장바구니 혜택 경쟁

경기 한파에 내수잡기 총력  
주유부터 가맹점 할인 혜택

카드업계가 필수소비 영역 할인혜택을 담은 신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쇼핑부터 주유, 관리비 등 다채롭다. 사치품이나 여행보다는 장바구니 소비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8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도매 및 소매업종의 카드승인금액은 46조6500억원 규모였다. 전월 대비 2조15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동기(50조600억원)와 비교하면 감소세는 더 뚜렷하다. 1년새 3조4140억원 줄었다. 도매 및 소매업종은 자동차, 대형할인점, 백화점 등에서의 소비를 의미한다. 국내 산업분류 8종 중 결제 규모가 가장 크다.

숙박 및 음식점업의 신용카드 승인액도 2달 연속 내리막길이다. 지난 2월 숙박 및 음식점업의 신용카드 승인잔액은 11조2100억원이다. 전년 동기(11조6400억원) 대비 4320억원 떨어졌다. 아울러 직전 달인 1월과 비교하면 8600억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소비혜택을 담은 카드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Chat GPT가 생성한 ‘장바구니 물가에 힘들어하는 사람’.

원 감소했다. 도소매업 및 외식업종의 지출이 감소하는 것은 내수침체가 지속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카드업계 또한 이같은 소비 행태에 발맞춰 신규 상품을 공개하고 있다. 이달 롯데카드는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통합 혜택을 제공하는 롯데멤버스 카드 2종을 출시했다. 롯데멤버스 브랜드에서 사용한 금액의 최대 5%를 월 5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 즉시할인 혜택과 동일한 혜택을 받는 셈이다.

삼성카드는 삼성 iD 스테이션 2종을 공개했다. SK에너지 및 GS칼텍스와 협업한다. 주유 금액의 10%를 할인하며 주유비를 월 최대 3만5000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엔진오일 교체 시 2만원 할인을 연 2회 제공한다. 연회비는 1만5000원이다. 주유량에 따라 발급 첫 달부터 연회비 이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KB국민카드는 ‘KB 위시 올 플러스 카드’를 선보였다. 국내 가맹점 1%, 해외 가맹점 2% 할인 혜택을 한도 없이 제공한다. 이어 이동통신요금과 쇼핑 멤버십은 각각 5%, 50%씩 할인한다. 정기결제 할인 혜택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전업카드사 뿐 아니라 특수은행도 생활비 절감 카드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달 수협은행은 ‘올드림 신용카드’를 출시했다. 병원과 약국에서 결제 시 20%, 아파트관리비와 이동통신요금 자동 납부 신청 시 10% 할인을 적용한

다. 주유소에서는 리터(1)당 60원을 할인한다.

카드업계는 경기한파에 생활비 할인 관련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관측했다. 한동안 신규회원 유입 및 내수촉진에 발맞춰 신상품 출시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트레블카드’ 점유율 경쟁이 활발했다면 올해는 내수 시장 확보 경쟁이 우선순위로 올라왔다.

반면 사치품이나 외식업종 관련 혜택은 축소하고 있다. 신규 상품의 전월실적을 40만~50만원으로 낮게 책정하면서 전월실적이란 카드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금액이다. 당초 카드업계는 전월실적을 100만원 이상으로 결정하면서 점유율(MS) 확대 경쟁을 타진한 바 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해외여행 관련 마케팅은 비자, 마스터카드 등 제휴사와 함께 일회성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카드업계가 내수촉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소비심리에 맞춰 일상영역 할인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 KB금융그룹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참여 스타트업 모집

KB금융그룹은 오는 16일까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로 KB금융 계열사와 함께 차세대 금융 서비스를 만들어 갈 ‘KB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참여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KB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은 유망 스타트업과 KB금융 각 계열사가 협업해 공동 사업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KB금융과 스타트업의 동반 성장을 실현하는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KB금융은 각 계열사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와 사업 모델 창출에 적합한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보유 기술을 다양한 사업 분야에 실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선정 스타트업에게 KB금융 계열사와의 협업 기회를 제공한다. KB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운영 결과, 실제 업무 적용 가능성과 사업성이 확인된 협업 과제는 KB금융 각 계열사에서 분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KB금융은 올해 국내 사업뿐 아니라 글로벌 사업까지 모집 분야를 확대했다. KB국민은행, KB증권,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 KB라이프생명, KB캐피탈 등 총 6개 계열사가 참여해 총 11개의 과제(국내 사업 9개, 글로벌 사업 2개)를 함께 수행할 스타트업을 찾는다.

모집 과제는 ▲퇴직연금 비대면채널 혁신 추진을 위한 연금 킬러(Killer) 콘텐츠 개발(KB국민은행) ▲생성형 AI 서비스 응답 품질 평가 시스템 구축(KB증권) ▲AI 기반 보험설계사 화법 코칭 솔루션 도입(KB손해보험) ▲플랫폼 고객 행동 분석을 통한 개인화 마케팅 효과성 분석(KB국민카드) ▲인도네시아 주요 도시 부동산 자동 가격 산정 모델 개발(KB국민은행) 등이다.

선정된 스타트업에게는 실제 사업화 검증에 필요한 지원금(과제별 1000만원)과 KB이노베이션 HUB에서 운영 중인 강남HUB의 오픈이노베이션 프로젝트 룸이 제공된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신한은행 전역장교 대상 리더십 특별채용

신한은행이 2025 리더십 특별채용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특별채용 대상은 이미 전역했거나 오는 6월말까지 전역 예정인 대위 직급 이하 장교다. 모집분야는 개인·기업고객대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규직(일반직)이다. 채용절차는 서류전형 및 온라인 역량검사, 1·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4월 14일부터 29일 오전 10시 까지 ‘신한은행 채용’ 홈페이지에서 2025 리더십 특별채용에서 가능하다.

/나유리 기자 yul115@

## BNK금융, 금융 불확실성 대비 위기상황관리위 가동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 밀착 점검

BNK금융그룹은 경영진, 부서장이 참여하는 경영진 회의를 개최해 미국발 상호관세 조치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상시 대응을 위한 그룹 위기상황관리위원회를 가동했다고 8일 밝혔다.

BNK금융은 위원회를 통해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미국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울경 지역 수출기업과 협력업체는 물론,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거래 기업의 상황과 영향을 밀착 점검한다는



BNK금융그룹이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위기상황관리위원회를 가동했다. /BNK금융

방침이다.

또한 자금시장 동향과 환율 변동 추이 분석을 통한 리스크 관리 점검뿐만 아니라 자회사별 거래 기업 지원 방안

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그룹 차원의 신속한 대응체제 마련을 위해 그룹 대표단 회의를 통해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양승진 기자 asj1231@



# LG, AI 기반 '스마트 사운드' 구현... 오디오 시장 정조준

## '엑스붐' 브랜드데이

스테이지 301 등 신제품 3종 공개  
팝스타 윌아이엠, 제품 전반 관여  
'RAiDiO.FYI' 연동 계획 밝혀

LG전자가 세계적인 뮤지션 '윌아이엠'과 손잡고 인공지능(AI) 기반 무선 오디오 브랜드 'LG 엑스붐'을 선보이며 글로벌 오디오 시장 공략에 나섰다.

LG전자는 7일 서울 영등포구 복합 문화공간 그라운드220에서 'LG 엑스붐 브랜드데이'를 열고 신제품 3종을 공개했다. ▲120W 고출력의 '엑스붐 스테이지 301', ▲스테레오 사운드와 감각적 디자인의 '엑스붐 바운스', ▲컴팩트한 사이즈와 휴대성을 강조한 '엑스붐 그랩'이다. 세 제품 모두 AI 기반 '스마트 사운드' 기술이 핵심이다.

'AI 공간인식 사운드'는 스피커가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그라운드220에서 열린 LG 엑스붐 브랜드 데이에서 이정석 LG전자 MS사업본부 오디오사업담당 전무(왼쪽부터)와 윌아이엠, 오승진 LG전자 한국영업본부 MS마케팅담당 상무가 대담을 나누고 있다.

놓인 공간의 크기, 가구 배치, 벽 재질 등을 인식해 소리의 반사나 흡수 상태를 분석하고, 최적의 음향 밸런스로 자동 조정해 준다. 'AI 사운드-라이팅' 기능은 재생 중인 음악 장르에 맞춰 스피커 조명과 음장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한다.

제품별 활용도도 뚜렷하다. '엑스붐 스테이지 301'은 120W 고출력에 6.5인

치 우퍼, 최대 12시간 재생 가능한 배터리로 대형 공간에서도 풍부한 사운드를 구현한다. '바운스'는 튀어오르는 패시브 라디에이터와 매직 스트랩으로 야외 활동에 최적화됐고, '그랩'은 자전거 물병 거치대에도 들어가는 휴대성이 특징이다. 그랩은 iF 디자인 어워드 2025 본상도 수상했다.

제품별 활용 환경도 뚜렷하다. '엑



엑스붐 신제품 /LG전자

스붐 스테이지 301'은 120W 고출력에 6.5인치 우퍼, 최대 12시간 사용 가능한 배터리를 갖춰 파티나 공연장 환경에 최적화됐다. '엑스붐 바운스'는 음악에 반응해 상단 패시브 라디에이터가 튀어 오르는 역동적인 디자인이 특징이다.

이번 브랜드 리뉴얼의 중심에는 윌아이엠이 있다. 그는 세계적인 팝그룹 블

랙아이드피스 멤버이자 AI 라디오 앱 '라디오파이(RAiDiO.FYI)'의 최고경영자(CEO)다. 엑스붐의 '경험 설계자(Experiential Architect)'로 참여해 제품 디자인은 물론 사운드 콘셉트와 마케팅까지 전반에 관여했다. 그는 현장에서 "스피커는 소리를 내는 기계를 넘어서 어떤 경험을 만들어내는가의 문제"라며 "기존의 틀을 깨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윌아이엠은 향후 'RAiDiO.FYI'를 엑스붐에 연동할 계획도 밝혔다. 사용자의 음악 취향과 뉴스 관심사를 분석해 AI가 실시간으로 콘텐츠를 추천하고, 음성으로 질문에 응답하는 '양방향 오디오 시스템'을 구현할 예정이다.

LG전자는 엑스붐을 시작으로 오디오 브랜드를 포터블, 웨어러블, 홈 오디오 등으로 세분화하고,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제품군으로 확장한다는 전략이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 HD현대, 美 최대 방산 조선사 '함정 동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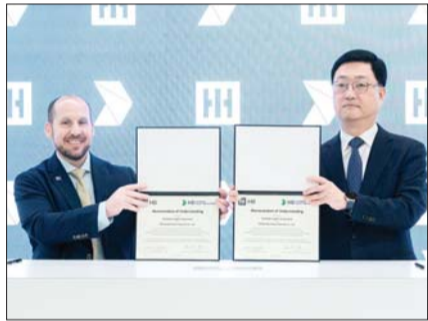
## 헌팅턴 잉겔스 기술협력 MOU 함정 건조분야 전문성·역량 결합

HD현대 미국 방산 조선사와 협력을 발판으로 선박 건조 생산성을 향상하며 미국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양국간 조선업 협력 기조가 국내 업계에 본격 영향을 주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HD현대 측은 지난 7일(현지시간) 헌팅턴 잉겔스와 '선박 생산성 향상 및 첨단 조선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헌팅턴 잉겔스는 미국 중남부 미시시피주에 미국 최대 수상함 건조 조선사인 잉겔스 조선소를 운영 중이다.

양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각 사가 보유한 함정 건조 분야 전문성과 역량을 결합해 선박 건조의 생산 효율성을 극



HD현대 측은 지난 7일(현지시간) 헌팅턴 잉겔스와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왼쪽부터) 잉겔스 조선소 브라이언 블란체트 사장, HD현대 중공업 주원호 특수선사업대표. /HD현대

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건조 비용과 납기를 개선하기 위한 노하우와 역량을 공유하기로 했다.

회사 측은 이번 협약이 현존 최고 사양의 이지스함 건조 역량을 갖춘 한국과 미국의 대표 조선 기업 간 최초의 협력 사례라고 강조했다. 양국 조선산업 파트너십과 신뢰 강화의 중요한 마중물

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디지털 조선소 구축을 위한 공정 자동화와 로봇, 인공지능(AI) 도입을 비롯해 생산인력 교육 및 기자재 공급망 참여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공동 투자를 위한 협력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 주원호 특수선사업대표는 "혈맹인 한국과 미국의 대표 조선기업 간 협력을 통해 양국의 조선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양국의 안보 협력 강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HD현대는 무인 수상정(USV) 분야에서도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미국 ABS선급과 미 해군용 경량 군수지원함에 대한 설계 인증을 위해 MOU를 체결하는 등 미국 조선업계 공략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기아 '더 기아 타스만'이 진흙진 구간을 민첩하게 주행하고 있다.

## 온로드·오프로드 자유롭게 질주 '픽업트럭 DNA' 품은 패밀리카



### 기아 타스만

주행경험 매력적... 실내 불편 최소화

'픽업트럭은 실용성이 뛰어나지만 다목적성은 부족하다는 선입견을 완벽하게 바꿨다.'

기아 브랜드 최초의 픽업트럭 '더 기아 타스만'을 시승하면서 느꼈던 생각이다.

최근 강원도 인제 일대에서 기아의 첫 픽업트럭인 타스만을 시승했다. 시승은 오프로드와 일반 도로, 임시도로

코스에서 진행됐다.

우선 타스만 기본 모델로 진행된 일반 도로 주행(편도 30km)에서는 SUV의 편안함을 즐길 수 있었다. 일반 도로 주행에서 풍절음이나 노면 진동, 소음은 물론 엔진음도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

특히 2열시트의 활용성이 인상 깊었다. 리클라이닝 기능을 접목해 기존 픽업트럭 2열 좌석의 불편함을 없앴다.

픽업트럭의 매력을 완벽하게 경험할 수 있는 오프로드와 임시도로 코스에서는 즐거움이 배가 됐다. 울퉁불퉁한 자갈과 진흙, 물도 거침없이 달리는 정통 픽업트럭의 매력을 완벽하게 보여줬다.

/양성운 기자 ysw@

# 한화에어로, 유상증자 축소... 3.6조 → 2.3조

## 안병철 사장 "주주 신뢰 보답할 것"

안병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략총괄 사장(사진)은 최근의 유상증자 논란과 관련 "사전에 주주들에게 예고 없이 결정한 것에 대해 사죄드린다"며 "경영적으로 옳은 방향이더라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유상증자 규모 축소와 제3자 배정 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화에어로는 8일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미래비전 설명회'를 열고 최근 논란중인 유상증자(유증)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달 20일 한화에어로는 이사회를 열고 3조6000억원 규모의 유증을 결의했다. 글로벌 방산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



응하기 위해 현지투자자와 해외 주주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시장의 신뢰도가 급속도로 떨어질지 한화에어로는 유증을 2조 3000억원으로 축소하기로 했고, 한화에너지가 1조30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를 검토하면서 투자 자원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1조3000억원이 승계 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의문점을 해소시킨 것이다.

안병철 사장은 "1조3000억원을 되돌리는 방법도 대주주들은 일반주주들이 받는 15%의 할인 없이 진행해 소액주주들에게 불리하지 않은 구조로 바꿨다"며 "회사가 부족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많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제3자 배정 유증은 이달 20~21일쯤 이사회 결의가 이뤄질 것"으로 덧붙였다.

한화에어로는 이날 설명회에서 미래 경영 계획도 밝혔다. 향후 4년간 총 11조원을 투자하고, 회사의 핵심 산업인 방산은 물론 조선·해양·에너지 분야에 집중 투자해 오는 2035년까지 연간 매출 70조원, 영업이익 1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투자 분야는 크게 2가지로 방산과 조선·해양·에너지로 ▲매출 증대를 위한 해외 투자 6조2700억원 ▲신규 시장 진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1조5600억원 ▲지상 방산 인프라 투자 2조2900억원 ▲항공우주 산업 인프라 투자 9500억원이다.

안 사장은 "성공적인 증자와 공격적인 투자 집행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주주 신뢰에 적극적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 LG이노텍-인텔, AI 비전 검사분야 협력

AI 기반 스마트팩토리 구축 속도

LG이노텍이 인텔과 협력해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속도를 낸다.

LG이노텍은 인텔과 AI 비전 검사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력으로 그래픽처리

장치(i-GPU) 기반 'AI 비전 검사 솔루션'을 생산 공정 전반에 적용할 계획이다.

LG이노텍 관계자는 "AI 학습 모델을 통해 검사 정확도를 100%에 가깝게 끌어올리고, 학습 시간도 최대 1.5배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혜민 기자

# ‘韓 유일 액화수소 생산·운송 기술’ 하이리움산업, 상장 통해 제2 도약

이달 기술특례상장 평가 본격 진행  
상반기 결산 후 9월 상장 신청 계획  
김 대표 “빠르면 11월께 일반 공모”  
독일·인도 법인 추진, 美·中엔 설립

액화수소분야 강소기업인 하이리움 산업이 증권시장 상장을 통해 제2의 도약을 시도한다. 하이리움산업은 국내 최초로 액화수소 생산·저장·이송·안전 기술을 독자 개발한 회사로 액화수소와 관련해 국내엔 경쟁자가 없다.

8일 하이리움산업에 따르면 회사는 이달부터 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평가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김서영 하이리움산업 대표는 “상반기 사업결산을 거쳐 9월에는 주권상장 신청을 할 계획”이라며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올해 11월쯤에는 일반 공모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카이스트(KAIST) 기계공학 박사 출신인 김 대표는 20년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액화수소를 연구하다 2014년에 하이리움을 창업했다.

하이리움은 기업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화투자증권 등이 재무적투자자(FI)로, 현대차, 포스코, SK가스 등은 전략적투자자(SI)로 각각 참여하며 지금까지 누적 402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기업가치는 1247억원에 달한다. 작년에는 중소기업투자 선정하는 예비유니콘 15개 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김 대표는 “우리는 수소 액화, 액화충전소, 운송트레일러, 저장탱크, 수



김서영 하이리움산업 대표. /김승호 기자

소드론 등 생산부터 활용까지 수소산업 전 주기를 다 커버하며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연구개발(R&D)에 적지 않은 투자비용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액화수소는 기체 상태인 수소를 영하 253℃의 극저온으로 액화한 것이다. 이렇게하면 부피는 800분의 1로 줄어들어 저장효율을 높일 수 있고 액화상태이기 때문에 운반하는데도 매우 안전하다.

김 대표가 하이리움을 창업한 이후 현재까지 액화수소탱크, 액화기, 수소드론 및 수소충전소와 관련해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등에서 취득한 등록특허만 52건, 특허출원은 58건에 달한다.

하이리움이 초저온 탱크 제조 글로벌 1위 기업인 미국 차트인더스트리와 함께 만든 액화수소 운송트레일러는 SK, 효성에 납품했다. 제안은 차트가 먼

저했다.

하이리움이 설계해 직접 제조하고 있는 이중으로 된 액화수소 저장탱크는 경쟁사 제품보다 오히려 가볍고 저장용량은 2~4배 더 많다. 이 저장탱크는 수소차,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수소선박 등 활용도가 매우 넓다. 저장탱크는 프랑스, 이스라엘, 일본, 영국 등에도 납품했다.

미국의 수소기업 엘리먼트1도 하이리움이 개발한 수소액화기 때문에 ‘러브콜’을 보냈다. 하이리움의 100kg/day급 수소액화기는 ‘수소 도시’를 지향하는 강원도 삼척시에 지난해 설치한 바 있다.

또 하이리움이 개발한 액화수소 드론은 6시간44분간 체공했다는 공식인증(2024년 4월5일)을 국내에서 받았다. 국내 최초의 액화수소 드론 1호기는 육군 아미타이거에 공급했다.

“한국에는 드론에 액화수소 탱크를 올리는 법규가 없다. 차량도 마찬가지다. 법규가 없어 액화수소탱크를 장착한 배를 바다에 띄우질 못하고 있다. 모든 부품을 국산화했는데도 제도가 받춰주질 않는게 현실이다. 유럽, 미국, 중동 등은 그렇지 않다. 이뿐만 아니라 알만한 슈퍼카 브랜드들도 액화수소 연료로 달릴 준비를 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멀었다.”

김 대표는 조만간 독일(에센)에 유럽법인을 세울 계획이다. 인도(뉴델리)에도 마찬가지다. 미국(LA), 중국(상하이)에는 이미 법인이 있다. 세계시장이 김 대표와 하이리움의 타깃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BYD, ‘아토3’ 앞세워 한국 공략 스타트

국고보조금 145만원으로 확정  
“한국 판매처 아닌 전략 거점”



을 내세우며 이른바 ‘가성비’ 전기차로 관심을 집중시켰다. BYD는 아토3의 본격적인 고객 인도로 국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선다. 하지만 BYD는 한국 전기차 시장을 단순 판매처가 아닌 전략 거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류세량 BYD 아시아태평양 자동차 영업사업부 총경리(사진)는 지난 3일 ‘2025 서울모빌리티쇼’에서 한국자동차기자협회 기자단을 만나 “10년 전부터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BYD는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기 전부터 삼성, LG 등 한국 기업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어 왔다”며 “한국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BYD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핵심 축이다. 기술적으로도 배터리, 반도체 등 모든 가치사슬이 연결되어 있고 자동차 시장에서도 한국은 단지 ‘판매처’가 아닌 ‘전략 거점’이다”고 강조했다.

소형 SUV 아토3의 판매가는 3000만원대 초중반대로 형성돼 있는데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받을 경우 실구매가는 2000만원대 후반까지 낮아질 수 있다. BYD는 지난 1월 아토3의 사전 계약을 시작하면서 저렴한 가격

/양성운 기자 ysw@

## 빛속 타설 가능한 ‘우중 콘크리트’ 개발

유진기업·동양

시간당 강우량 최대 6mm까지 가능

유진그룹 계열인 유진기업과 동양이 비가 오는 날씨에도 안정적으로 타설이 가능한 ‘우중 콘크리트’를 공동 개발해 출시했다. 8일 유진기업에 따르면 새로 선보인 우중 콘크리트는 제조 과정에서 특수한 화학 혼화제를 활용해 타설 시 시멘트의 재료분리 저항성을 크게 향상한 게 특징이다.

현재 국토교통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시간당 강우량이 3mm이하

일 경우에만 콘크리트 타설이 가능하다. 이 때도 빗물 유입 방지를 위한 천막 설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우중 콘크리트는 이러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된 제품으로, 빗물이 콘크리트에 유입되더라도 시간당 강우량이 최대 6mm까지는 레미콘 품질 확보가 가능하다. 또 기존 배합과 유사한 압축강도를 유지할 수 있다. 우천 시 거푸집 내부에 빗물이 고여 있더라도 우중 콘크리트가 이를 밖으로 밀어내면서 거푸집을 채워 재료분리 현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 LS, 우크라이나 전력·에너지 등 협력 강화

명노현 부회장, 현지서 관계부처 회동  
지난해 트랙터 5대-ESS 1대 등 지원  
전력 생태계 구축·복구 방안 논의

LS가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및 복구가 시급한 전력·에너지·농업 분야에 대한 경제 협력을 강화한다.

8일 LS에 따르면 명노현 LS 부회장은 4월 초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머물며 현지 에너지부, 경제부, 농림부 등 관계 부처 장관 및 CEO를 만나 ESS(에너지저장장치)를 비롯한 에너지 송배전망 복구와 농업 인프라 지원을 중심으로 상호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LS는 지난 2023년 우크라이나에 트랙터와 로더 등의 농기계를 5대씩 지원했다. 올해는 임시 전원공급이 필요한 곳에 쓰일 ESS 1대를 지원하며 우크라이나 정부와 인연을 맺어왔고 이는 이번 회담 성사의 계기가 됐다.

우선 로만 안다랴 우크라이나 에너지부 차관과 주요 기업 CEO 등을 만난 명 부회장은 LS그룹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발전, 송전, 배전 등 전력 인프라 및 ESS, 에너지 분야의 기술



(왼쪽 다섯번째) 명노현 LS 부회장이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에너지부, 농림정책·식품부, 경제부 인사들과 만나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LS

력에 대해 소개했다. 또 우크라이나의 전력 생태계 구축 및 복구 방안에 대해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비탈리 코발 우크라이나 농업 정책 및 식품부 장관을 만난 그는 전쟁으로 인한 농업 산업 피해 복구와 관련해 트랙터 분야에서의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해 현지 트랙터의 약 75%가 손실된 상황에서 이를 복구하기 위한 LS와의 협력안에 대해 적극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안드리 텔리우파 우크라이나 경제부 차관 등과의 회의에서는 재건 사업 전반에 걸친 참여 방안과 LS그룹의 투자 및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명 부회장은 “이번 출장을 통해 LS그룹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파트너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우크라이나와의 강력하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상호 ‘윈윈’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 락앤락, ‘생활용품’ 동남아 판로 넓힌다

태국 씨피 엑스트라와 업무협약

락앤락이 태국 최대 유통그룹과 손잡고 동남아시아 시장 추가 공략에 나선다. 락앤락은 태국 씨피 엑스트라(CP Aextra)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CP Aextra는 태국을 대표하는 CP 그룹의 주요 유통 계열사로 대형 창고형 할인점 ‘마크로(Makro)’와 슈퍼마

켓 체인 ‘로투스(Lotus’s)’를 운영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 각지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락앤락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CP Aextra 전용 제품 및 신규 상품 입점, 오프라인 판매 채널 확대 등을 통해 태국 현지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CP 그룹이 진출한 아시아 시장으로도 판로를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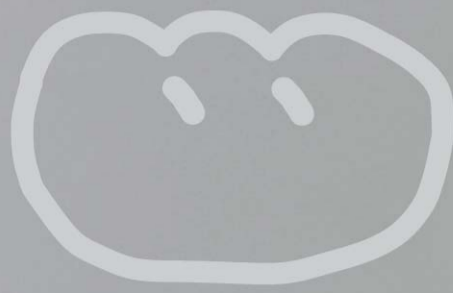
## LX하우시스, 바닥재 등 인테리어 쇼룸 선보

무브먼트랩서 인기제품 13종 적용

LX하우시스가 국내 리빙·가구 편집샵 ‘무브먼트랩(Movement Lab)’과 협업해 최신 라이프스타일과 트렌드를 반영한 쇼룸을 선보인다. LX하우시스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위치한 ‘무브먼트랩 세컨드마켓’에 ‘에디톤 마루’ 바닥재, ‘디아팡’ 벽지, 인테리어필름 등 인

기제품 13종을 적용한 쇼룸 공간 ‘페르소나의 집’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최신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쇼룸 공간은 ▲30대 식집사(식물+집사)의 내추럴 룸 ▲반려묘와 사는 30대 신혼부부의 거실 ▲취미 많은 20대 남자의 방 ▲요리 유튜버가 꿈인 40대 주부의 다이닝 공간 등으로 총 4가지로 구성했다. /김승호 기자



HOOKKA HOOKKA STUDIO®

후카후카스튜디오 | ふかふか スタジオ | 呼卡呼卡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 후카후카스튜디오 ] 에서 다양한 귀여움을 만나보세요!

인스타그램 @hookka.hookka.studio

공식 홈페이지 ddada.kr

후카후카스튜디오

공식홈페이지 구경하기



# “뤼튼 3.0 통해 진정한 생활형 AI로... ‘1인 1 AI’ 시대 열 것”

신규서비스 ‘뤼튼 3.0’ 주요내용 공개  
AI 서포터, 감정교류 EQ레이어 기반  
개별 사용자 정보 학습해 맞춤형  
돈이 되는 AI, 기존 간소화 미션 제공  
네이버 등 페이스서비스 금융모델 염두

“생성형을 넘어 진정한 생활형 AI(인공지능)로 거듭나겠다. ‘1인 1 AI’ 시대도 열겠다.”

최근 성공적 투자 유치로 실탄을 확보한 뫼트테크놀로지스는 8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신규서비스 ‘뤼튼 3.0’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이세영 뫼트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인터넷과 모바일이 그러했듯 AI 역시 우리 삶의 일부가 되고 있다”며 “뤼튼은 창업 당시부터 AI 대중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왔으며, 이번 뫼트 3.0 출시를 통해 모두의 일상 속 깊숙이 자리잡는 진정한 데일리 AI 서비스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뫼트 3.0 서비스의 핵심인 AI 서포터는 일반인에게 다소 어렵



이세영 뫼트 대표가 간담회에서 뫼트 3.0을 소개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

고 생성했던 AI 에이전트와 달리 이용자 각 개인에게 최적화된 외형과 말투, 이용자 정보, 장기 기억력을 결합해 감정적 교류를 유도하는 EQ레이어를 기반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뤼튼은 ‘생활형 AI 시대를 이끌어 나갈 뫼트 3.0’을 주제로 뫼트의 신제품·핵심 기술·서비스를 발표했다. 4월 내로 서비스되는 ‘뤼튼 3.0’은 ‘1인 1AI’

시대를 내세워 개인화한 AI를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다.

제성원 뫼트컴퍼니인 서비스파트장은 “전국민 1인 1AI 시대, AI 서포터” 발표를 통해 “우리 국민 5000만명에게 각 개인에 맞는 5000만개의 AI를 보급하겠다”며 “AI 서포터는 단순한 비서나 보조자를 넘어 이용자 각 개인과 정서적으로 친밀하면서도 개인 최적화된 형

태로 업무와 여가 활동을 돕는 AI 조력자를 의미한다”고 전했다.

1인 1AI의 핵심으로 내세운 ‘나만의 AI 서포터’는 개별 사용자의 정보를 학습해 말투와 스킨까지 맞춤형에 감정적 교류가 가능한 서비스를 표방했다. 이를 위해 10배 좋아진 메모리를 통해 사용자와 모든 대화를 AI가 기억하게 된다.

기능 개선을 ‘뫼트 알아서 해주는 AI’에 주안점을 두고 의도 파악을 통해 적당한 도구를 추천하고, AI 모델 자체를 자체적으로 오케스트레이션 하고, 검색 여부까지 알아서 판단하는 AI로 성능 개선이 이뤄진다.

돈이 되는 AI는 기존 리워드를 제공하는 앱과 유사하되 한층 기준을 간소화하는 각종 미션들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포인트 성냥을 캐시로 전환, 1캐시를 1원처럼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현재까지 확보한 제휴사는 20~30개 정도이고, 그중에서 모바일이나 지류 상품권으로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업체만 우선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뤼튼은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페이스서비스 등 금융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도 확인했다.

이동재 뫼트 CPO는 “이번 진화 테마는 생성형에서 생활형으로 나아가는 도약으로 ‘생활형’을 들었을 때 단어부터 생소하고 어렵다”며 “이렇게 하기 위해 3가지 혁신으로 1인 1 AI 시대를 열어 모든 사람에게 유의미한 사용처로 무료를 넘어 소득까지 제공하는 서비스로 거듭나겠다”고 설명했다.

뤼튼 박민준 컴퍼니인 AI 파트장은 “1인 1 AI를 가능하게 한 기술적 배경과 성능 업그레이드는 ▲이용자 의도 파악과 도구 추천 알고리즘 ▲최신 AI 모델 활용 ▲검색 데이터베이스(DB) 현지화 ▲검색의 자동화 ▲모델 오케스트레이션의 이용자 선호도 반영 등을 통해 이용자 사전 조사 결과 약 35%의 만족도 향상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뫼트테크놀로지스는 이달 중 AI 에이전트 서비스와 관련해 별도 오픈소스 사업을 공개할 예정이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 통신3사, 혜택강화로 고객 이탈방지 ‘총력’ ‘갤럭시 S25 크룩스 토이스토리 에디션’ 판매

알뜰폰, 올해 1000만 회선 돌파 전망  
멤버십, 결합할인, 고객관리 박차  
신규 유치보다 기존고객 유지 ‘집중’

가입자 정체기에 접어든 통신사들이 경쟁적으로 혜택을 강화하고 나섰다. 이동통신 3사 가입자가 알뜰폰(MVN)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가속하고 요금 인하 압박이 거세져 멤버십 혜택 확대, 고객 서비스 경험 차별화 등으로 기존 고객을 잡아두려는 전략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최근 자사 멤버십 혜택을 대폭 강화하고, 회선 결합 범주를 넓히며 기존 고객 이탈 방지에 집중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알뜰폰은 2025년 1월 기준 955만 8016개의 회선을 확보하고 있다. 올해 중 1000만 회선 돌파가 예상된다. 2021년 609만 2800여 개였던 알뜰폰 회선 수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에 300만 개 이상 늘어나며 제3의 시장 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통 3사는 알뜰폰으로 이탈하려는 기존 고객을 붙잡기 위해 멤버십 혜택 강화와 가족 결합 회선 상품 확대, 고객 서비스 경험 차별화 등을 선택했다.

이달 SK텔레콤은 ▲SPC그룹 브랜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해피오더’ 앱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커피 브랜드 백미당 ▲북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 ▲스킨케어 브랜드 셀퓨전씨 등 4곳과 신규 제휴를 체결하며 T멤버십 혜택을 확대했다. 또한 멤버십 정기 이벤트인 ‘T 데이’ 론칭 7주년을 맞아, 4월 한 달간 다양한 이벤트를 전개한다.

KT는 이달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해 ‘따로 살아도 가족 결합’ 상품을 확대 개편, 실질적인 통신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6월 무선 회선 수를 최대 7회선으로 늘렸을 당시 소비자의 긍정적인 반응을 반영해, 최대 10회선까지 결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또 ‘싱글인터넷 베이직’ 상품에도 모바일 결합 혜택을 추가 적용해, 인터

넷 요금 5500원 할인에 모바일 결합 할인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AI를 활용해서 소비자의 서비스 불만을 사전에 탐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고객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새롭게 도입한 ‘고객관계관리(CRM)’ 시스템은 고객의 개통·AS 정보, 상담 내역, 품질 정보 등을 통합 관리하고, AI가 고객의 잠재 불만과 불편을 선제적으로 감지하는 플랫폼이다. 초고속인터넷·IPTV 등 홈 서비스를 이용 중인 소비자가 불만을 표현하기 전에 미리 대응함으로써,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낮추고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통신 3사의 최근 마케팅 전략은 신규 고객 유치 대신 기존 고객 이탈 방지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멤버십 혜택 강화, 가족 결합을 통한 요금 할인,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편의 증대가 대표적인 변화다. /김서현 기자 seoh@

KT닷컴, 500대 한정 제품

KT는 영화 ‘토이스토리’ 30주년을 맞아 크룩스 코리아,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 함께 ‘갤럭시 S25 크룩스 토이스토리 에디션’을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제품은 KT 공식 온라인몰인 KT닷컴에서만 500대 한정 판매된다.

이번 에디션은 ▲갤럭시 S25 256GB 아이스 블루 모델을 기반으로 ▲KT 전용 크룩스 케이스 ▲토이스토리 지비츠™ 5종 ▲랏소 캐릭터 스트랩 ▲랜덤 토이스토리 피규어 ▲토이스토리 안드로이드 테마 ▲크룩스 온라인몰 할인 쿠폰 등 다양한 콜라보 아이템으로 구성됐다.

제품 실물은 KT와 크룩스 주요 매장 10곳에서 전시되며, 자세한 매장 정보는 KT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T는 갤럭시 S25 시리즈 구매 고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한다. ‘4월은 갤럭시 4기 좋은 달’ 프로모션을 통해 기존 갤럭시 S21 또는 폴더블 3 시리즈 이후 모델을 반납하면 중고



KT가 출시한 갤럭시 S25 크룩스 토이스토리 에디션 이미지. /KT

시세에 15만 원을 추가 보상하며, 삼성 카드로 결제 시 7% 캐시백 혜택도 제공된다.

온라인몰에서는 요금 69요금제 가입자 대상 ▲갤럭시 탭 A9+ ▲갤럭시 버즈 FE ▲갤럭시 워치 7 중 하나를 10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며, 월정액 7% 추가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S25 구매 고객 중 ‘갤럭시 체인지 초이스스페셜’ 또는 ‘프리미엄’ 요금제를 이용하는 경우, 단말 반납 시 최대 50% 보상이 가능한 ‘안심 체인지 New 갤럭시 AI 클럽’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김서현 기자

## SKT, 보이스피싱 실시간 대응시스템 선택

스캠뱅가드, 금융·에이닷에 탑재

SK텔레콤이 자사의 AI 사이버보안 기술 ‘스캠뱅가드(ScamVanguard)’를 기반으로 통신 정보와 금융 데이터를 연계한 AI 기반 이상탐지 통합 서비스를 선보였다.

8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이번 솔루션은 보이스피싱, 스미싱, 스캠 등 전자금융사기를 통합 탐지·분석할 수 있는 기술로, 통신 이력과 금융 행위를 결합한 국내 최초의 실시간 대응 시스템이다. SK텔레콤은 스캠뱅가드를 기반으로

▲AI 미끼문자 탐지 ▲피싱 채팅 감지 ▲보이스피싱 통화 패턴 분석 ▲본인확인 분석 등 4가지 AI 기술을 고도화해 탐지 정확도를 한층 높였다.

기술은 이미 해외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스캠뱅가드는 CES 2025에서 ‘사이버보안 부문 최고 혁신상’, MWC25 글로벌 어워드에서는 ‘커넥티드 소비자를 위한 최고의 이동통신 서비스’ 부문에 선정됐다.

SKT는 지난해 9월 체결한 협약을 바탕으로, 이번 솔루션을 금융권 고객보호 시스템인 ‘SurPASS’에 탑재해 IB

K기업은행에 적용했다. SurPASS는 보이스피싱 탐지, 회선가입 정보, 단말기 정보, 위치정보 등을 통해 금융사고를 사전 차단하는 보안 패키지다.

기업은행은 정식 도입 전 2주간의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총 26건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 차단하고, 약 5억9000만 원의 피해를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거래가 일어나기 전 이상 패턴을 포착해 거래 자체를 차단한 사례도 포함돼 AI 탐지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이상탐지 솔루션은 SKT의 AI 서비스 ‘에이닷(A.)’에도 탑재돼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번호로부터 수신되는 전화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제공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 SK C&C, AI기반 공장 SHE 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환경)

모니터링 통해 사고 예측·예방 조치

SK C&C는 대형 산업 현장 및 제조 공장 특화 안전·보건·환경(SHE) 관리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AI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기존 SHE 시스템을 고도화한 것으로, 제조 현장을 모니터링해 사고 위험을 예측하고 예방 조치를 지원한다.

AI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이용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고, 사고나 재

해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다.

SK C&C 관계자는 “대형 공장과 산업 단지는 넓은 작업 공간과 복잡한 공정이 얽혀 있어 여러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면서 “이 서비스는 고해상도 영상 분석, 진동 탐지, 가스 센서 네트워크 등의 기술을 활용해 정밀한 안전 관리를 돕는다”고 말했다.

SK C&C는 국내 주요 제조 공장에 AI DX 기반 SHE 서비스를 도입해 공정 설비와 데이터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hjk1@

# 서학개미 “지하실까지 간 美 주식… 반등 기대에 몰타기”

‘관세전쟁’ 글로벌 금융시장 급락 폭락 美 빅테크주 공격매수 나서 6일간 엔비디아 7282만 달러 테슬라 2618만 달러 등 순매수

직장인 박모(38)씨는 지난 4일 뉴욕 증시에 상장된 엔비디아를 주당 94달러에 3000만 원어치 사들였다. 지난해 12월 이 주식에 투자해 평균 매입 단가가 주당 130달러 정도였는데, 이날 주가가 급락하자 ‘몰타기(저가에 추가 매수해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것)’에 들어간 것이다. 박씨는 “지하실까지 간 것 같다. 조금 기다리면 반등할 것이라 생각에 추가 매수했다”고 말했다. 관세전쟁 여파로 아시아 주식 시장 등 글로벌 금융시장이 급락한 7일 미국 뉴욕증시는 등락을 거듭했다. 다우 평균은 0.9%, S&P500 지수는 0.2% 내렸고, 나스닥 지수는 0.1% 상승했다. 월가의 공포지수로 알려진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



ChatGPT가 생성한 ‘하락하는 미국 증시에 몰타기하는 투자자’ 모습.

동성 지수(VIX)는 48을 웃돌았다. 일반적으로 20미만이면 안정적, 30이상이면 변동성이 높아진 상태라고 부른다. 용감한 결가, 무모한 결가. 최근 뉴욕 증시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하자 국내 ‘개미(개인 투자자)’들이 미 빅테크 기업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 급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본 것이다. 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서학개미들은 주가 폭락을 보였던 엔비디아(7282만달러), 테슬라(2618만달러), 애플(2083만달러) 등의 기술 기업에 대한 순매수를 유

지했다. 더불어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 컨택터 볼 3X’(2억7086만달러)과 나스닥 지수를 2배 추종하는 ‘프로세서즈 울트라’(8027만달러)를 순매수 상위 종목에 담았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최근 급락을 단기 수익을 올릴 기회로 삼는 건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세계 관세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다. 트럼프는 이날 오전에 소셜미디어 트루소셜에 올린 글에서도 관세전쟁을 멈추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학대받아(long time abused) 온 미국은 이미 시행 중인 관세를 통해 매수 수익을 달러들(미국을) 학대하던 나라들로부터 벌어들이고 있다”면서 “유가가 내려가고 있고 금리도 내려가고 있으며 식료품 가격도 내려가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느릿느릿한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적었다. 미국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재무장관

을 지낸 로런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3~4일 뛴던 것과 같이 시장에 더 많은 격변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면서 “이러한 낙폭은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시사하며, 사람들이 매우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블랙스완’ 이벤트에 베팅하는 전략으로 유명한 유니버사 인베스트먼트의 마크스피츠나겔 설립자 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7일(현지시간) “이번 급락 사태는 투자자들을 떨쳐 내기 위한 또 다른 투매일 뿐 세상의 아마겟돈은 아니다”라며 “진짜 폭락장은 거품이 터지면서 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진욱 삼성증권 연구원은 “관세 충격을 상쇄할 수 있는 통화-재정 정책의 대응 여력을 감안할 때, 최대 피해국은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은 현재의 실효 관세율이 3~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경기 침체 확률이 40%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국민연금, 1분기 주식 평가액 8.2조 증가

한화에어로 등 방산·조선 상승 영향 삼성SDI·현대차 등 일부종목 하락

올해 1분기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평가액이 8조원 이상 불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방산과 조선 업종이 큰 폭의 주가 상승을 기록하며 전체 보유 주식 가치 상승을 견인한 결과다. 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해 공시 의무가 발생한 상장사는 4일 기준 총 274개사로 나타났다. 이들의 주식 평가액은 136조754억원에 달했으며, 이는 지난해 말(12월 30일 기준) 127조8418억원보다 8조2337억원 증가한 수치다. 상승 폭이 가장 컸던 종목은 방산주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조2941억원 늘었고, 현대로템(4333억원), 한국항공우주(1822억원)도 상승세를 이 끌었다. 조선 업종 중에서는 한화오션



서울에 위치한 한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내부 모습. /뉴시스

이 5687억원, 삼성중공업이 1631억원 씩 평가액을 끌어올렸다.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각각 1조3300억원, 4439억원씩 증가했다. 방산과 조선 업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과 함께 방위산업 확대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양승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훈련기 사업의 타임라인이 앞당겨지고 이집트 FA-50 수주

가능성도 커지면서 전투기 사업도 순조롭다”며 “전차 분야에서도 폴란드 K-22차 계약 체결이 시장 기대 대비 늦어지고 있지만 현지 생산 관련 세부 조정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조급해질 필요가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중국 조선소 견제 움직임이 계속되는 가운데 상선 발주의 흐름이 한국으로 향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부 종목은 오히려 평가액이 감소하기도 했다. 삼성SDI는 3074억원, 현대차 3024억원, 기아 2906억원, LG에너지솔루션 2725억원씩 줄어들었다. 국민연금의 신규 대량 보유 종목도 눈에 띈다. 올해 1분기 중 HMM, 포스코DX, 두산로보틱스, 호텔신라, 대주전자재료, 코스모신소재, 와이엔터테인먼트 등은 지분율이 5% 이상으로 올랐다. 반대로 신세계푸드, 한솔제지, 씨앤씨인테리어, 진에어, 명신산업, 삼양홀딩스 등은 지분율은 5% 밑으로 떨어졌다. /신하은 기자

## ‘美배당다우존스 커버드콜’ 자산 1조 돌파

미래에셋, ETF ‘SCHD’ 투자 3종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 3종의 순자산 총합이 1조원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거래소 전날 종가 기준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타켓커버드콜1호’와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타켓커버드콜2호’,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타켓데일리커버드콜’의 순자산은 각각 678억원, 9136억원, 138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상품들은 미국의 대표 배당주 ETF ‘SCHD’에 투자하면서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한다.

커버드콜 ETF의 분배 재원은 옵션을 매도한 대가로 얻는 프리미엄으로, 기초자산과 옵션 전략의 성과가 부진할 경우 분배금 감소는 물론 장기적으로 원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윤병호 미래에셋운용 전략ETF운용 본부장은 “최근 커버드콜 ETF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자본차익과 인컴수익의 적절한 균형을 통한 지속가능한 배당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커버드콜ETF’는 앞으로도 꾸준한 자본 수익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분배금을 늘려나갈 수 있는 ETF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관세공포에 증시 ‘흔들’... 장기적 하락 우려

“추가적 조치 따라 변동성 커질수도”

트럼프발 관세 전쟁 장기화 우려에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증시가 반등하기 위해선 이러한 불확실성이 구조적으로 해소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26% 오른 2334.23에, 코스닥은 1.10% 상승한 658.45에 거래를 마감했다.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하루에도 수십포인트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발 관세 공포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미국에 대응해 중국과 유럽

연합(EU) 등 주요 국가들이 보복 관세를 예고하면서, 무역 전쟁이 전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국내 투자심리도 급격히 위축됐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날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8조6085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국내증시의 불확실성이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초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보며 시장은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지난 2일 실제로 상호 관세가 발표되면서 그간 반영되지 않았던 무역 전쟁 리스크가 급격히 반영돼 하락폭이

확대됐다”며 “향후 미국과 중국의 발인 수위나 추가 조치에 따라 시장 변동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부 증권사들은 관세 전쟁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수출 중심의 국내 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코스피 하단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삼성증권은 이달 코스피 하단을 기존보다 100포인트 낮춘 2250선으로 조정했고, 흥국증권 역시 2분기 코스피의 변동 폭을 2200~2700선으로 낮춰 제시했다. 양일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주가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1기 때에 비해 무역 분쟁의 전선이 넓고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무역 분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한국 기업 실적에 시차를 두고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

## 삼성운용, 인도 중소형주 투자 ETF 상장

‘KODEX 인도Nifty미드캡100 ETF’

삼성자산운용은 인도 중소형주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최초 상장지수펀드(ETF)인 ‘KODEX 인도Nifty미드캡100 ETF’를 신규 상장한다고 8일 밝혔다. KODEX 인도Nifty미드캡100ETF는 인도 증시의 중소형주 대표 지수인 ‘Nifty Midcap 100 Index’를 추종하며, 인도 내수 경제를 주도하는 100개 중소형 성장 기업에 분산 투자한다. 특히 인프라(40%)와 소비재(30%) 등 내수 성장의 핵심 섹터에 집중한다. 인도 중소형주의 성장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편입 종목은 인도 의료 분야의 강자 기업인 ‘맥스 헬스케어(Max Healthcare)’, 인도 전통 호텔 기업인 인디언 호텔(Indian Hotels), 봄베이 거래소를 운영하는 BSE 등이 포함된다. 세계 최대 인구를 보유한 인도는 소



비시장 확대, 젊은 노동력, 디지털 인프라 확장,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의 구조적 성장 요인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인도의 중소형주는 급성장하는 내수 시장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기업군이다. 세계 최대 청년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빠른 도시화와 내수 시장을 주도하는 중산층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재, 금융, 인프라, IT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에서 강한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중소형 기업들은 이러한 시장 변화의 최전선에 있다. /원관희 기자

관세폭탄 대응 전략

# “피해 분석부터 대체시장까지” 맞춤 지원으로 수출기업 숨통

**산업부-코트라, 온라인 설명회  
관세 바우처 200곳에 첫 지원  
중소·중견 맞춤형 컨설팅 등 제공  
현지 전문가 활용한 분석 주력  
수출피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



코트라 서울 본사 전경.

#건축자재 수출기업 A사는 전체 수출의 90% 이상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어, 이번 4월부터 적용된 관세 영향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A사는 미국 수출을 지속해야 하는 만큼, 향후 미국이 추진할 프로젝트에 대해 ‘관세 피해분석 및 대응 전략 컨설팅’을 관세 대응 바우처를 통해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미국 관세 정책으로 인한 이같은 우리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을 개시하고, 9일 오전 10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미국 현지시간) 한국과의 교역에 상호관세 25% 부과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관세 우려는 현실이 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와 코트라는 우리 기업의 불안 해소와 애로 지원을 위해 지난 2일부터 ‘관세 대응 119 종합지원센터’ 체제를 확대 운영하고, 전용 콜센터와 온라인 관세 확인 시스템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현장 애로에 민감하게 대응 중이다. 앞서 지난 3월부터는 지역별 ‘찾아가는 관세 대응 지방 설명회’를 미리 개최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미국산정부의 상호관세발효로 인해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수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을 새롭게 개시, 1차적으로 4월 중으로 200여 개 기업의 관세

관련 영향분석 및 대응, 대체시장 발굴을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에 나선다. 지난 2017년 정식 출범한 산업부 수출 바우처 사업은 그간 ▲산업별 중소기업 일반수출바우처사업 ▲수출물류비 지원 전용 수출바우처사업의 형태로 추진돼 왔다.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은 기존과 달리 코트라 해외 무역관이 발굴한 해외 현지 관세·법률 전문가 역량을 활용한 관세 영향분석 및 대응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세 바우처 사업 신청은 바우처포털(exportvoucher.com) 내 ‘관세 대응 패키지 서비스’ 메뉴에서 피해분석, 피해대응, 생산거점 이전, 대체시장 발굴 등 카테고리별 지원 세부 내용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미국의 전방위적인 상호관세 발표로 수출 현장의 혼란이 예상되지만, 차분히 해법을 찾아야 할 때”라며,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현지 전문가 역량을 활용한 맞춤형 대응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무보, 해외지사에 긴급자금 수혈 나서

**‘美 관세대응 긴급지원 TF’ 설치  
장영진 사장 총괄, 부사장 유동지원  
“위기 새로운 도전 기회로 바꿀 것”**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기업 피해 현황을 조사해 대응한다. 무보는 8일 ‘美 관세대응 긴급지원 TF’를 설치하고 수출기업을 위한 총력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TF는 미국 관세 피해 긴급 대응을 위한 전사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것인 만큼, 장영진 무보 사장이 총괄하고, 부사장 3인이 각각 유동성 지원, 공급망 재편 및 정책·홍보 파트를 맡는다.

TF는 우선 국내 18개 지사, 국외 23개 지사 현장 네트워크를 활용해 관세 피해를 접수한다. 특히 국내 수출기업 뿐만 아니라 해외진출기업을 포함해 주요 수출업종별·규모별 수출애로 및 피해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긴급지원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미국과 베트남 등의 경우 해당 국가 소재 지사를 활용해 현지 정책동향과 기업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TF는 또 중소기업 자금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대체시장 진출 및 신규 수입자 발굴 지원, 국내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을 위한 시

설자금 및 해외 현지법인 운전자금 지원 등도 추진한다. 무보는 앞서 2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마련된 범정부 비상수출대책을 이행하며 미 관세정책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 관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수출기업에 대해 무역보험 한도를 최대 2배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인 경우 수출보험료를 한시적으로 최대 60%까지 할인을 적용한다. 또 해외로 생산시설 이전 및 신규 투자 추진 기업에 대해서는 연중 2조원 이상의 해외 투자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 에이스침대, ‘인체 무해’ 거짓 광고 시정명령

공정위, 마이크로가드 주요 성분 유해 인체에 무해하다며 판매한 에이스침대 매트리스 소독·방충제가 인체 유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와 관련해 에이스침대의 거짓·과장 표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에이스침대는 자사 매트리스 옆면에 장착해 세균과 곰팡이 번식과 진드기 서식 예방 등의 목적으로 ‘마이크로가드’를

출시해 판매하면서 2016년 11월경 ~ 2018년 6월까지 제품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했다고 표시했다. 하지만 마이크로가드 주요성분인 디에틸톨루아마이드(DEET)와 클로록실레놀(Chloroxyleneol)에 대해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화학물질에 대한 재등록 적합 결정 평가보고서(R.E.D. Facts)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는 눈, 피부, 경구 등 신체의 접촉 경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독성과 건강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성분명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제시한 설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마이크로가드 포장에는 ‘미국 EPA가 승인한’ 성분으로 만든 제품이라는 표현이 붉은색으로 강조돼 있고, ‘인체에 무해하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십시오.(정부공인기관 시험완료)’라는 표현도 같이 기재돼 있어 이 사건 제품의 주요성분이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 농식품부, 농촌융복합 고속성장 돕는다

스케일업 기업 5곳 선정 최대 5억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융복합분야 민간투자 기반 스케일업(고속성장 벤처기업) 지원사업’ 대상자로 5개 농업회사법인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5곳은 굴메달, 영글어농장, 팜토리, 그레도팜, 슬로푸드이다. 농촌융복합분야 민간투자 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은 ‘농촌융복합산업’ 분야의 지역 선도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민간 투자를 유치한 우수 사업자를 대상으로 최근 2년간 유치한 민간투자금과 1:1 매칭으로 최대 5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산물 등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제조·가공업(2차), 체험·관광업(3차) 등과 결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 5곳은 민간투자, 창업, 식품 가공·외식 등 분야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올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굴메달은 제주의 다양한 품종 특성을 살린 시트러스 주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복합 F&B 공간 구축을 성장 전략으로 내세웠다. 영글어농장은 유기농 현미를 배지로 활용하여 버섯을 쌀 형태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현미버섯쌀 양산화 및 비건 단백질 파우더 개발이다. 또 팜토리는 자사 스마트팜 재배 열채류 및 지역농산물 전처리 포장·판매, 회전식 수직베드형 스마트팜 설비 개발을, 그레도팜은 다양한 토마토 품종의 맛을 살린 디핑소스 등 제품 개발을 제시했다. 슬로푸드는 수출용 스과우트 파우치 형태의 배추 제조 및 부산물을 활용한 워터젤리 개발이다. 김고은 농식품부 농촌경제과장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농산물 소비와 농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지역 선도 기업들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식품부는 앞으로 농촌융복합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사업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AI 고독사 예방 서비스로 12명 생명 구조

한전, 지자체 협업으로 안전망 확대  
한국전력공사는 8일 첨단 AI(인공지능) 기술과 빅데이터 분석을 융합한 ‘AI 고독사 예방 서비스’를 통해 이날 기준 현재까지 12명의 소중한 생명을 성공적으로 구조했다고 밝혔다. 한전의 ‘AI 고독사 예방 서비스’는 전력, 통신(SK텔레콤, KT), 수도(수자원공사) 등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생활 데이터를 AI로 정밀하게 분석해 이상 징후를 감지하면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에게 SMS로 위험 상황을 알리는 서비스다. 한전은 연간 3300억 건에 달하는 AMI(지능형 검침 인프라) 데이터를 활용해 사회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이를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자체 보유한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1인 가구의 생활 패턴을 분석해 고독사 예방 서비스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또 통신과 수도 사업자 참여를

이끌어 내 데이터 융합·분석으로 서비스의 정확도를 높였다. 현재 전국 84개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약 1만여 명의 돌봄 대상자에게 제공 중이며,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울산 남구에서는 전력 및 통신 사용량 급감 이상 신호 감지 후 현장을 방문, 의식불명 상태인 58세 남성을 긴급 이송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전북 남원에서는 90세 치매 환자의 생활 반송 데이터 이상 징후를 포착해 현장 출동했고, 2차선 도로 한가운데를 걷고 있던 환자를 구조하기도 했다. 이 서비스는 또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전화 안부 확인과 방문 업무를 약 86% 감축시켜 업무 부담을 줄였고, 기존 IoT센서나 기기 설치 방식 대비 약 690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도 창출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양평·평창서 ‘로드킬 방지 센서’ 시범 운영

환경부, LIDAR 설치해 감지  
환경부가 영상인식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동물 찾길사고(로드킬) 예방 시스템’을 지방 국도 2곳에 설치해 9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기 양평과 강원 평창이다. 동물 찾길사고 예방시스템은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폐쇄회로(CC)TV와 라이다(LiDAR) 센서를 설치해 동물 출현을 감지한다. 150m 전방에 설치한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에 ‘전방 150m 이내 야생동물 출현’ 문구를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시스템이다. 또 해당 시스템의 인공지능 기술은 야생동물의 종류, 출현 시간 등 축적된

데이터를 학습(딥러닝)해, 사전에 예측한 정보로 동물 출현을 알려준다. 이를 통해 운전자는 전방에 동물 출현을 인지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된다. 이 시스템 개발을 위해 지난해 7월 환경부는 포스코DX,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양평군과 평창군에서 동물 찾길 사고가 잦은 도로를 각각 1곳씩 선정한 뒤 지난해 설치했다. 환경부는 또 오는 2027년까지 강원 횡성, 전북 남원 등 동물 찾길 사고 다발 구간 도로 3곳에 추가로 해당 시스템을 설치하고 효과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인터파크 평점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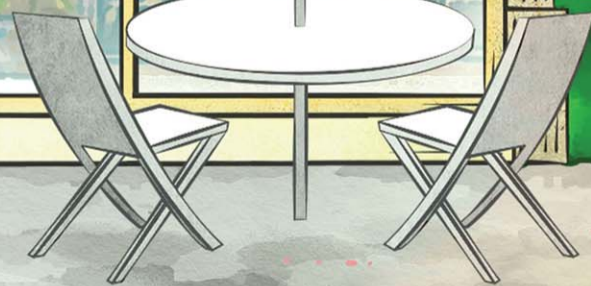
현실 캐릭터들의 집합소 '올웨이즈 편의점'으로 오세요!

뮤직 드라마

# 불편한 편의점

## Always

24  
Times



2023.4.8 SAT - OPEN RUN **올웨이즈시어터**

원작 불편한 편의점 (나무옆의자 2021, 원작자: 김호연) | 프로듀서 황기현 | 연출/각색 홍현우 | 음악감독 김은지  
무대디자인 주미영 | 조명디자인 정필균 | 음향디자인 안형록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제작PD 문혜인 | 무대감독 박민서 | 컴퍼니매니저 소우현

주최·제작 극단 지우 | 후원 나무옆의자 출판사 [waterfall story](#) | 예매처 [interpark](#) | 문의 02-332-4902

# 부산시, 지난해 外人 의료관광객 3만명 유치... '역대 최다'

### 2023년비 2.3배 ↑... 비수도권 1위 대만 의료관광객, 1840% 급증 SIT 조성 강조한 3대 전략 추진

부산시는 지난해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이 3만 165명으로, 유치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9년 이후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1만 2912명 대비 2.3배(133.6%)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의료 관광객을 최대로 유치했던 2019년 1만 9748명보다 1.5배(52.7%) 증가한 실적이다.

이로써 시는 2026년까지 부산 의료 관광 객 3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조기에 달성했다.

부산은 2023년 대비 전국 유치 순위가 상승하며 비수도권 1위를 처음 차지했고,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부산 ▲제주 ▲인천 ▲대구 순으로 의료 관광 객이 많이 방문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적별 부산 의료 관광 객은 ▲일



지난해 부산 의료관광 중국 비즈니스 상담회.

/부산시

본(24.3%) ▲대만(23.9%) ▲중국(11.8%) ▲러시아(9.5%) ▲베트남(6.3%) ▲미국(5.2%) 순으로, 일본이 2년 연속 부산 의료 관광 방문 1위를 차지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대만 의료 관광 객이 2023년 대비 무려 1840% 급증한 점이다.

부산 의료 관광 객이 가장 많이 찾은 진료과는 ▲피부과(40%) ▲성형외과(14.3%) ▲검진센터(11.2%) ▲내과통합(9%) ▲치과(5.7%)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과 비교해 피부과가 674%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이어 ▲한방통합 170% ▲치과 156% ▲성형외과 127% ▲검진센터 98% 순으로, 경쟁 중심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피부·성형 이용자 비중 상승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내과통합 비중은 2023년 대비 15.3% 감소하며 그 순위도 하락했다.

시는 지난해 ▲'외국인이 가장 많은 찾은 의료기관' 선정 및 공동 홍보 ▲검진·뷰티·한방×비즈니스패스트

화 홍보 ▲일본·대만 타깃 유치기관 마케팅 지원 ▲중국 타깃 한국관광공사 공동 마케팅 집중 추진 ▲권역별 특화지역 활성화 지원 등으로 부산의 의료 관광 브랜드 가치가 상승해 의료 관광 객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한다.

시는 올해 '2025 부산 의료 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수목적 관광도시(SIT)' 조성을 강조한 3대 전략으로 ▲의료 관광 유치 기반 강화(SIT) ▲융복합 차별화(Identity) ▲타깃 브랜딩(Targeting)을 추진한다. 시는 2025 문화체육관광부 '웰니스·의료 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 공모 평가 1위로 확보한 국비 5억 원을 포함해 총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문 인력 및 국제 의료 인증기관 양성 ▲종괄 안내 서비스 지원 ▲부산 의료 기술 홍보·마케팅 지원 ▲상품 개발 및 인센티브 제공 ▲치유·의료 관광 체험단 초청 홍보 여행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타깃 시장 진료과별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산=이도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경산시 '통합위임장 제도' 시행

경산시가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적측량 신청부터 개발행위 허가, 지적공부 정리까지 하나의 문서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위임장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토지 분할 신청 시 위임을 받은 사람이 업무를 처리할 경우, 측량을 신청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개발행위 허가 부서(허가과), 토지이동정리를 담당하는 토지정보과에 각각 별도의 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경산시는 하나의 통합위임장을 작성하면 지적측량, 개발행위(분할), 토지이동신청 등 관련 민원 업무 전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경산(경북)=김준한 기자

### 완도군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개막

'2025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가 지난 5일 개막했다.

올해 축제는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5일 개막식에서는 관광객을 맞이하는 청산 농악대 공연을 시작으로 느림의 종 타종식, 나비를 유채꽃밭에 날리는 '나비야, 청산 가자!', 구들장 논에서 수확한 쌀로 떡을 만들어 나눠 먹는 '구들장논 방앗간', 전복 치킨 '복닭복닭' 시식 등이 진행됐다.

올해 열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는 '청산도에서 낮밤 없이 돌아보세!'를 주제로 ▲걸어보세 ▲낮밤 돌아보세 ▲기록하세 등 세 가지 테마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 포항시 기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포항시가 2025 중소벤처기업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술적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기술 컨설팅과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기술지원은 ▲IT&스마트팩토리 ▲계측 &엔지니어링 ▲환경&에너지 ▲시험분석 ▲이차전지 등 8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포항(경북)=최지용 기자 asdadx@

### 울산시 미안마에 구호금 7000만원 지원

울산시는 지난 3월 28일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미안마 국민을 돕기 위해 구호금 7000만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2016년 미안마 만달레이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래 상호 교류단 파견 등 지난 10여 년간 다양한 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구호금 지원은 미안마가 조속히 지진 피해를 복구하고 안정되기를 바라는 울산 시민의 위로의 뜻을 담아 전달한다.

/울산=이도석 기자



부산상공회의소는 지난 7일 상의홀에서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전국 권역별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부산상공회의소

## 부산상의 “산업은행 본사 부산이전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출발점 될 것”

### '전국 권역별 합동 토론회' 개최 개정안 처리 촉구·공감대 형성

부산상공회의소(이하 부산상의)는 지난 7일 오후 2시 상의홀에서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시민공감과 공동으로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전국 권역별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산업은행 부산이전 이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의 출발점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상의가 주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국민동의청원은 목표인

5만 명을 조기 달성함에 따라 지난해 5월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을 비롯한 영남, 호남, 충청, 제주 등 전국 각 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역별 시민단체 대표의 공동성명서 서명 및 낭독, 안권욱 지방분권경남연대 공동대표의 주제발표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권역별 대표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첫 출발점은 산업은행 본사 부산이전이라고 명확히 선언하면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부산=이도석 기자

## 전남도, 3D프린팅으로 세라믹산업 육성

### 2년간 총사업비 15억 투자

전라남도가 올해부터 세라믹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세라믹 소재를 활용한 3D프린팅 기술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남은 국내 세라믹 분말 원료 시장의 40%, 산화알루미늄 국내 생산의 97%를 차지하는 핵심 지역이다. 특히 목포와 영암 일대를 중심으로 KC, 대한세라믹스 등 16개 세라믹 원료 소재 기업이 밀집해 세라믹산업의 최적지로 손꼽힌다.

2025년부터 2년간 총사업비 15억 원을 투자해 ▲국산 세라믹 3D프린팅 장비 구축 ▲지역 세라믹 소재 활용 3D프린팅 상용화 기술 개발 ▲참여기업 대상 3D모델링 설계·교육 및 시제품 제작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

세라믹 3D프린팅 기술은 정밀하고 복잡한 형상의 구현이 가능하며, 금형 없이 디지털 모델링을 통해 직접적층 제조할 수 있어 공정 효율성이 높다.

또한 금속을 직접 절삭 가공하는 방식과 달리 금속스프레이드 폐기물이 없어 친환경적이며, 재료비 절감 효과도 뛰어나다. 이 기술은 항공우주, 방위산업, 의료, 반도체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에 활용될 수 있어 기대가 크다.

곽부영 전남도 기반산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세라믹 3D프린팅 소재의 국산화를 실현하고, 미래 세라믹 산업을 선도할 첨단 기업을 유치해 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를 적극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경북도, '항공산업 육성 프로젝트' 추진

### 업종전환 지원... 부품 국산화 촉진

경북도가 '항공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2030년 대구경북공항 개항을 앞두고 전기·전자, 반도체, 방위산업 등 지역 주력산업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인 항공 분야로의 업종전환을 지원하고, 부품국산화를 촉진해 도내 기업을 발굴·육성하고자 추진된다.

참여 기업 모집 분야 지원 규모는 ▲군(軍) 및 민간 항공 부품국산화 기술개발(품목지정형 최대 6000만원, 자유공모형 최대 4000만원) ▲기술고

도화 및 품질향상을 위한 제품화 지원(최대 1500만원) ▲시험평가 및 인증 지원(최대 300만원)이며, 항공기술분야 관련 컨설팅은 모집 기간과 상관없이 수시 접수해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복잡한 인증 절차와 초기 투자에 따른 부담 등 항공 분야의 높은 진입장벽을 고려해 진입 기반이 마련돼 있고 수요가 뚜렷한 군수 부품 분야에 우선 진출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이를 위해 경북도와 공군 군수사령부가 협력해 군에서 필요한 품목을 지정하고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품목지정형' 방식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 사천시, 115년 만에 행정구역 정비 추진

### 생활권 중심 구역조정 계획

사천시는 시민 생활 편의성과 행정서비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약 115년 만에 행정구역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행정구역은 1910년 토지조사사업 당시 설정된 것으로 도시화 및 산업화로 생활권 변동 등으로 실제 행정

구역이 바뀌었으나, 공부상 변경되지 않아 불편과 행정 비효율이 지속됐다.

시는 효율적인 행정구역 정비를 위해 생활권 중심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할 계획이다. 행정구역변경 정비사업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실시할 계획이며 1차년도 사업 대상은 12개 구역 172필지이다.

/사천(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 당 걱정없이 맛있고 건강하게... '웰빙 저당' 식품 뜬다

**롯데웰푸드 '제로' 누적매출 1000억 건과·빙과·유가공 등 19개 제품**

**빙그레 아이스크림 '딥앤로우' 선배**

**삼립 건강빵 브랜드 '프로젝트:H'**

**오뚜기 '라이트앤조이' 브랜드 론칭**



롯데웰푸드 제로 제품 19종.



/롯데웰푸드 라이트앤조이 브랜드 라인업.

/오뚜기

당류 섭취를 줄이려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식품업계가 단발성 저당 제품 출시를 넘어 아예 저당 전문 브랜드를 앞다퉈 론칭하며 장기적인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건강과 체형 관리를 중시하는 MZ세대는 물론, 당뇨병이나 비만 등 만성 질환을 예방하려는 중장년층까지 저당 식품 수요가 폭넓게 확산되는 추세가 반영된 결과다.

8일 시장조사업체 모도 인텔리전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저당·무설탕 식품 시장 규모는 약 193억 5000만 달러로 추정되며 연평균 성장률 3.98%를 기록해 2029년에는 235억 2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당뇨병 환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도 저당 제품 소비를 촉진하는 배경으로 지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30~39세 당뇨병 환자 수는 2019년

15만2292명에서 2023년 17만7952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기존에는 한정판 제품이나 일부 라인업에만 저당 콘셉트를 적용하던 기업들이 이제는 기능성과 맛까지 고려한 '웰빙 저당 식품'을 앞세워 고객 충성도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롯데웰푸드의 저당 전문 브랜드 '제로(ZERO)'다. 롯데웰푸드는 2022년 5월 건강에 부담이 되는 요소를 줄여 소비자에게 먹는 즐거움과 건강한 삶을 제공한다는 비전 아래 제로 브랜드를 론칭했다. 이후 매년 목표 매출을 초과 달성하며 누적 매출 1000억원을 돌파했다.

제로는 현재 건과, 빙과, 유가공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19개 제품을 운영 중이다. 특히 기존에 음료 시장 위주로 형성돼 있던 무설탕 트렌드를 식품 시장으로 확장시키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론칭 첫 해 하반기에만 16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데 이어 2024년에는 약 500억원의 실적을 기록해 2022년 대비 214% 성장했다. 롯데웰푸드는 올해도 라인업 확장과 마케팅 강화로 제로 브랜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이에 질세라 빙그레도 지난달 저당 아이스크림 브랜드 '딥앤로우(Deep&Low)'를 선보였다. '맛은 깊게, 당은 낮게'라는 콘셉트를 내세운 딥앤로우는 대체당인 알룰로스를 사용해 100g당당

량을 5g 이하로 줄이면서도 풍부한 맛을 구현했다. 초코 크런치바, 카라멜 존드바, 소프트 바닐라 치어팩 등 총 6종을 출시하며 로우스펙 아이스크림 시장 공략에 나섰다.

삼립은 저당 베이커리 수요에 대응해 건강빵 전문 브랜드 'Project:H(프로젝트:H)'를 론칭했다. 삼립이 올해 초 설립한 '미래 식품 연구소'의 첫 결과물로 단백질은 높이고 당은 낮추면서도 빵 본연의 풍미를 살린 고단백·저당 베이커리 제품이다. 식사용으로 적합한 '프로틴 저당 큐브식빵' 5종과 '프로틴 저당 모닝빵 테프', '제로슈가 프로틴 도넛 더블초코' 등 총 7종으로 구성됐다. 100g당 평균 13~17g의 단백질을 함

유해 영양과 맛의 균형을 고려한 점이 특징이다.

오뚜기는 당, 열량, 지방 등을 낮춘 저당 제품들을 통합해 '라이트앤조이(Light&Joy)' 브랜드로 선보였다. 기존에 분산돼 있던 저당 소스, 잼, 저열량 참치, 황도·백도 제품 등을 하나의 브랜드로 묶어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고 유통 채널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풀무원도 저당·고단백 식단을 원하는 소비자를 위한 맞춤형 식단 구독 서비스 '디자인밀(DesignMeal)' 내 신규 식단으로 '저당고단백밀'을 운영한다. 100g당 당류 함량을 5g 미만으로 설계하고, 메뉴당 18g 이상의 단백질을 포함시켜 당 관리와 동시에 포만감 있는 식사를 제공한다. 하루 권장 섭취량의 약 47%에 해당하는 단백질을 한 끼로 섭취할 수 있으며, 평균 칼로리는 400kcal대에 불과해 체중과 건강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맛을 내기 위한 설탕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선택이 소비 기준이 되고 있다"며 "저당 제품의 품질과 다양성 확보가 앞으로 시장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정관장, 남성에 활력 '알엑스진' 누적매출 100억 돌파

**자가 건강관리 남성 증가 추세**  
**홍삼오일·두충우슬추출복합물**  
**갱년기 건강에 도움 기능성 인정**



정관장 RXJIN PEAK UP. /KGC인삼공사

"남성에게 좋은 건강기능식품 좀 추천해주세요." 건강기능식품 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요즘 50~60대 남성들이 직접 건강을 챙기려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한다. 예전에는 아내가 대신 사러왔지만, 요즘은 남성 고객이 더 적극적이라는 것.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최근 1년 내 건강기능식품 구입률은 60대가 56.1%에서 73.9%, 70대는 33.4%에서 45.4%로 증가했고, 남성의 구매 증가폭이 여성보다 컸다. KGC인삼공사

측도 "2024년 신규 고객 중 60대 이상 남성의 매출이 타 연령대 대비 약 50% 이상 높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영 시니어'로 불리는 50~60대 남성들이 건강 관리를 직접 챙기며

관련 시장도 주목받고 있다. KGC인삼공사는 이들을 위한 남성 건강 브랜드 '알엑스진(RXGIN)'을 2023년 론칭했다.

'알엑스진'은 기존 다양한 소재를 결합한 타 남성 건강 제품과 달리 남성에게 꼭 필요한 기능성을 단일 소재로 채워 넣은 것이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소팔매도 열매 추출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남성 건강 시장에서 프리미엄 신소재인 '홍삼오일'과 '두충우슬추출복합물'을 개발해 남성 기능성 원료 시장을 확장하기도 했다.

2023년 출시된 전립선 건강기능식품 '홍삼오일 알엑스진 클린(RXGIN CLAEN)'은 입소문만으로 6차례 완판

을 기록했다. 이듬해에는 남성호르몬을 증가시켜 갱년기 남성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두충우슬추출복합물'로 남성활력 강화 제품인 '알엑스진 피크업(RXGIN PEAK UP)'을 출시했다.

정관장은 '알엑스진' 2종만으로 누적 매출 100억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다.

KGC인삼공사 관계자는 "알엑스진'의 경우 남성 구매비율이 더 높아 남성 시니어의 관심이 체감되는 수준"이라며, "알엑스진'의 남성 건강 시장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다양한 남성 건강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 롯데GRS-종근당 헬스앤웰니스 시장 공략 신메뉴라인업 16일 출시

롯데리아·엔제리너스·크리스피 크림 도넛 등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는 롯데GRS가 국내 건강기능식품 대표 브랜드 종근당건강과 '헬스앤웰니스(Health&Wellness)' 시장 공략에 나선다.

롯데GRS는 지난 7일 롯데GRS 송파구 삼전 사옥에서 이승주 롯데GRS 마케팅부문장과 유지형 종근당건강 식품사업부 사업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유 브랜드를 활용한 협업 메뉴 개발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신원선 기자

## 한화푸드테크 백리향, 14일 '흑야미식회'

단 하루 블랙데이 디너 프로모션

한화푸드테크가 운영하는 중식과인 다이닝 '백리향'이 4월 14일 블랙데이를 맞아 디너 프로모션 '흑야미식회(黑夜味食會)'를 단 하루 진행한다.

63스퀘어 57층에 위치한 백리향은 서울 도심과 한강을 전 좌석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야경 명소다. '스윗 달빛 패키지'와 '불꽃축제 패키지' 등 탁 트인 고층 뷰를 강조한 야경 특화 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백리향은 이날 저녁, 조명을 소등하고 촛불만으로 레스토랑 홀을 장식한다. 로맨틱한 분위기에서 야경을 감상

하며 중식 코스를 즐기기도 좋다. 코스 요리로는 ▲어항가지새우 ▲일품전복관자찜 ▲사색냉채 등 7가지 메뉴가 제공된다. 얇게 채 썬 산삼 튀김을 곁들인 'X.O 동과육'도 별미다. 식사료는 ▲짜장면 ▲백짬뽕 ▲볶음밥 중 하나를 고르면 된다.

방문 리뷰 이벤트도 마련했다.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필수 해시태그를 포함한 게시물을 남기면 '쁘띠 휘낭시에'를 후식으로 증정한다. 필수 해시태그는 ▲63레스토랑 ▲63빌딩백리향 ▲블랙데이 백리향 ▲여의도중식맛집총 4개다. 흑야미식회는 4월 13일까지 사전 예약을 받으며 가격은 9만3500원이다. /신원선 기자

## 롯데마트 '농심 우육탕면' 단독 출시

대만 정통 우육탕면 스타일 재현

롯데마트가 이달 10일 '농심 육수대가 우육탕면'을 유통채널 단독으로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농심 육수대가 우육탕면'은 농심과 협업해 대만 정통 우육탕면의 스타일을 그대로 재현한 상품이다. 깊고 진한 소고기 육수에 매콤함을 더한 것이 특징이며, 국물의 경우 한국인의 입맛을 고려해 고추와 마늘 등의 채소를 활용했다는 게 롯데마트 측 설명이다.

최근 중화요리에 대한 고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번 단독 협업 상품은

을 개발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실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롯데마트의 중화요리 관련 간편 요리 식품 매출은 전년 대비 약 10% 상승했다.

한편, 롯데마트는 우육탕면 출시를 기념해 이달 30일까지 구해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우육탕면 2개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개당 10% 할인을 적용해 제공한다.

롯데마트·슈퍼 이영주 조미대용식품팀 상품기획자(MD)는 "중화요리 트렌드를 따르면서 기본적인 우육탕면 맛에 집중해 남녀노소 모두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단독 상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 롯데홈쇼핑-서울시 산불피해 이재민 돕기 돌담길서 13일 바자회

롯데홈쇼핑은 서울시와 함께 이달 13일 서울 중구 덕수궁 돌담길 차 없는 거리에서 산불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한 '힘내세요! 돌담길 바자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이번 바자회를 통해 약 1억원 상당의 패션·잡화 물품을 후원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50% 할인가로 판매할 예정이다. 판매 수익금 전액은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사용된다. 이번 행사는 최근 잇따른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경상 지역 이재민을 돕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전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서울여성단체협의회 등 여성·이동 관련 19개 단체도 함께 참여한다. /안재선 기자

# K뷰티, 美·日 넘어 아프리카까지... 新성장동력 마련 박차

**스킨1004** 나이지리아 '메드플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ARC' 입점 인도 주요 리테일 9곳 유통망 확보  
**아누아** 올해 유럽·중동·호주 진출 **아모레퍼시픽** 동아시아서 고성장 **에이피알** 유럽 B2B 사업 고도화



인도 '티라' 매장 내 스킨1004 코너 전경. /스킨1004

국내 주요 뷰티 브랜드들이 미국, 일본 등 대형 시장에서의 글로벌 성과를 바탕으로 수출국을 새롭게 확대하며 신(新) 성장동력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8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스킨케어 브랜드 스킨1004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유통망을 넓혔다.

최근 서아프리카 지역인 나이지리아에서 '메드플러스' 입점을 확정했다. 메드플러스는 나이지리아 대표 드럭스토어로 145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스킨1004는 오는 5월까지 주요 지점 40곳에 초도 입점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럭셔리 뷰티 스토어 'ARC'의 10개 매장에 입점한다.

올해 1분기 스킨1004의 아프리카 매

출은 전년 동기 대비 317%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커지는 현지 수요에 발맞춰 대형 리테일을 통해 소비자 접점을 늘릴 계획이다.

지난 2월에는 인도에서도 뷰티 유통망을 확보했다. 인도 최대 뷰티 e커머스터라, 나이카 등 주요 리테일 9곳에 입점을 완료한 것이다. 나이카는 인도의 올리브영으로 알려져 있어 스킨1004는 인도 내 브랜드 전파가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스킨1004는 입점 매장을 향후 순차적으로 확장해 나가기보다 최초 입점

단계에서부터 대규모 계약을 진행하는 전략으로 브랜드 성장 가능성을 입증해 왔다. 특히 미국에서는 1400개에 달하는 얼타뷰티 매장, 400곳 동시 입점을 진행한 코스트코, 1600여 곳의 타겟 매장 등에서 입지를 다졌다.

또 스킨 1004는 현지 기후 특성, 소비자 취향 등을 반영해 선별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피부 진정 기능을 갖춘 '센텔라' 제품군의 경우 마다가스카르산 병풀추출물 성분, 고품질 원료 수확 및 공정 관리 등을 통해 제품력을 높였다. 글로벌 뷰티 브랜드 아누아는 올해

들어 유럽, 중동, 호주 등으로 잇따라 진출했다. 지난 1월 영국, 2월 두바이에 이어 독일, 호주 등을 신규 수출 국가로 추가했다.

아누아에 따르면 여성초 클렌징 오일과 토너, 트라네삼산 나이아신 흔적 세럼 등 브랜드 대표 제품들은 해외 시장에서도 각 카테고리 인기 순위로 오르고 있다.

중동 지역의 경우 여성초 제품군뿐 아니라 라이스 클렌징 파우더 등이 판매 호조를 보이며 브랜드 성장을 견인한다. 아누아는 라마단 기간도 정조준하는 등 문화권 맞춤 밀착 대응으로 신 시장에 안착하겠다는 방침이다. 라마단은 두바이 등 이슬람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지켜지는 절기다.

인디 브랜드와 함께 국내 뷰티 대기업도 해외 영토 확장에 집중한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부터 베트남, 태국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고성장을 이뤄냈다. 태국에서는 더마 화장품부터 색조 화장품까지 제품군을 다양하게 구축해 보다 폭넓은 소비자층을 적극 공략한다. 더마 브랜드 에스트라는 민감 피부 소비자에 적합한 의약학적 기술을 집약한 제품을 내놓고 있다. 컨템포

러리 뷰티 브랜드 헤라는 태국 대표 백화점 센트럴 칫롬에서 문을 열었다.

에이피알은 올해 동유럽과 북유럽에 거점을 둔 유통사와 파트너십을 강화해 유럽 전역에서 해외 기업 간 거래(B2B) 사업 모델을 고도화한다. 에이피알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에스토니아 등 북유럽 경제권에 중점을 둔 화장품 사업에 총력을 쏟고 있다. 유럽 내에서도 국내총생산(GDP)이 매우 높은 축에 속하는 국가들에서 판로가 안정화되면 상당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뷰티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K뷰티가 아마존의 프라임데이, 블랙프라이데이, 큐텐의 메가와리 등 특정 프로모션 때마다 두각을 드러내면서 미국이나 일본에서 불고 있는 한류 열풍과 입소문을 입증했는데, 그 성과를 바탕으로 신흥 국가를 개척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아마존이나 큐텐, 틱톡을 비롯해 대형 리테일의 효과는 범위가 넓고,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 영역이다. 기존 성공 노하우를 새로운 시장에 확대 적용했을 때 여러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 생명연, '슈퍼박테리아 제어' 新항생제 개발

유기물질에 금나노입자 결합 내성 극복... 차세대 치료법 제시



국내 연구진이 항생제 내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항균 치료법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내성 발현 속도가 더욱 빨라진 슈퍼박테리아가 급증하면서 기존 항생제 치료법의 한계가 드러났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런 슈퍼박테리아(항생제 다제내성균)가 차세대 팬데믹이 될 것으로 경고하고 있어 새로운 항균 치료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8일 감염병연구센터 류충민 박사(사진) 연구팀이 바이오나노 기술을 이용하여 슈퍼박테리아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금나노입자와 지질나노입자 기반의 신규 항생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성과는 인체의 유익한 균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특정한 병원균만을 선택적으로 사멸시킬 수 있어 항생

제 내성 문제를 극복하면서 슈퍼박테리아를 정밀하게 타겟하여 제어할 수 있는 신개념 치료 기술이다.

연구팀은 먼저 세균 생존에 필요한 철분을 세포 내로 이동시키는 시데로포어(siderophore)라는 유기물질에 금나노입자를 결합시켰다. 그 후 특정파장(808nm)의 빛(근적외선)을 비추었는데 세균 속에 들어간 금나노입자가 순간적으로 수백도의 열을 발생시켜 실험대상인 녹농균을 물리적으로 사멸시켰다.

생쥐 피부 감염 모델을 이용한 실험 결과 신속하게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면역세포나 정상피부 조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생체안전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연구팀은 또 다른 연구에서 세균 안

PR-Cas13a)을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지질나노입자를 제작했다. 세균 특이 가이드 RNA가 세균의 특정 유전자를 인식하면 유전자 편집 시스템에 있는 효소(Cas13a)가 세포 내 RNA를 무작위적으로 분해하여 세균이 사멸됐다.

패혈증 동물 모델을 이용한 실험결과 새로운 지질나노입자에 의해 세균 몸속으로 들어간 유전물질이 치명적인 유전자 편집을 일으켜 세균이 사멸되면서 패혈증을 성공적으로 억제하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책임자인 류충민 박사는 "슈퍼박테리아를 연구하는 생물학에 나노기술을 접목하여 개발한 이번 기술은 기존 항생제 치료 방식에서 벗어나 차세대 감염 치료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며,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슈퍼박테리아와의 싸움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 동아제약 "치발기로 0세부터 구강관리"

'조르단 스텝 베이비 치발기' 출시

완화해 준다.

동아제약은 파트너사인 오클라코리아가 '조르단 스텝 베이비 치발기' (사진)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조르단 스텝 베이비 치발기는 0세부터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영아의 치아 발육과 건강한 양치 습관 형성을 돕는다. 제품 표면에 부드러운 돌기를 적용해 간지러운 잇몸을 마사지하고, 치아가 자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을

아기가 쉽게 잡도록 부드러운 링 형태로 설계해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식기세척기 및 전자레인지 활용한 간편한 세척을 통해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이 제품은 환경 호르몬 성분이 없는 '비스페놀A 프리' 인증을 받은 안전한 소재로 제작됐고 국가통합인증(KC), 유럽연합 적합성 인증(CE) 등도 획득했다.

/이청하 기자



## 아모레퍼시픽, 비동물성 PDRN 개발

피부 재생 유도 효과 확인

라고 명명한 물질의 작용 기전과 기능을 규명했다.

아모레퍼시픽이 미세조류 클로렐라 유래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PDRN)의 피부 재생 효능을 입증했다고 8일 밝혔다.

PDRN은 피부 재생을 촉진하는 물질로 알려져 의약품, 화장품 등에서 원료로 쓰인다. 기존 PDRN은 대부분 연어나 송어 등에서 추출한 동물성 성분이 활용됐으나 아모레퍼시픽은 지속가능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비동물성 PDRN을 생산하기 위해 미세조류 클로렐라에 주목했다.

아모레퍼시픽은 해양수산부 '해양바이오 원료제형 기술개발' 사업에 참가해 클로렐라에서 추출한 PDRN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고품질 저분자 PDRN 생산 공정을 개발하고 '블루 PDRN'이

'블루 PDRN'은 상처 치유 과정에서 일어나는 피부 세포의 증식과 이동을 크게 향상시키고, 피부 조직을 구성하는 콜라겐 합성 및 혈관 생성 관련 인자의 발현을 높인다. 또 동물성 PDRN과 마찬가지로 아데노신 A2A 수용체(A2AR) 메커니즘을 통한 피부 재생 유도 효과도 확인됐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안전성과 효능을 갖춘 화장품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Blue PDRN 제조 기술인 '연속식 모듈공정을 활용한 미세조류(클로렐라)에서 분리한 저분자 PDRN 제조기술' 특허를 출원했으며, 해양수산부 신기술(NET) 인증 및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도 받았다.

/이청하 기자

## 삼성바이오에피스, '에피스클리' 美 발매

도매가격 대비 30% 인하

중후군, 전신성 중증 근무력증 등을 적응증으로 확보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미국에서 희귀질환 치료제 '에피스클리(성분명: 에콜리주맵)'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미국 내 마케팅 및 영업 활동은 테바 파마슈티컬 인터스트리가 맡는다.

에피스클리는 난치성 희귀질환 치료제 '솔리리스' 바이오시밀러로,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비정형 용혈성 요독

에피스클리는 오리지널 의약품인 솔리리스 도매가격 대비 30% 인하는 가격으로 발매됐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에피스클리가 가격 경쟁력을 갖춰 글로벌 의료 현장에서 바이오시밀러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솔리리스는 대표적인 초고가 희귀질환

환 치료제다. 미국에서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과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한 연평균 투약 금액은 한화로 약 7억6000만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2024년 4월 국내에서도 에피스클리를 오리지널 의약품인 솔리리스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출시한 바 있다. 유럽에서는 2023년 7월 출시했으며 독일, 이탈리아 바이오시밀러 시장 점유율 1위, 프랑스 최대 구매조합, 네덜란드 주정부 입찰 수주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이청하 기자



AI·Cloud·연계 플랫폼 초월 기업

# AI LLaMON Platforms

상용/SaaS 하이브리드형  
연계통합 미들웨어·디지털 트윈 플랫폼 시장점유율 1등 기업



현실과 디지털 세계를 연결하는

# METABUILD





**KT&G, '글로벌 100대 혁신기업' 3년 연속 선정**

KT&G는 지난 4일 글로벌 지식재산권(IP) 솔루션 기업인 '렉시스넥시스(Lexis Nexis)'가 꼽은 '글로벌 100대 혁신기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한정호 KT&G NGP개발센터장(오른쪽)과 안형진 렉시스넥시스 한국영업대표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KT&G



**iM금융-대구경찰청,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맞손**

iM금융그룹 DGB사회공헌재단은 대구경찰청, 지역아동센터 대구지원단과 함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황병우 iM금융그룹 회장(왼쪽 첫번째)이 이승협 대구경찰청장(가운데) 및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M금융



**티웨이항공-산림청, '탄소중립 나무심기' 행사**

티웨이항공은 지난 4일 제80회 식목일을 기념해 산림청 춘천국립관리소와 함께 '탄소중립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티웨이항공과 산림청이 공동 추진하는 '푸른 숲, 맑은 하늘 만들기' 슬로건 아래 기획한 행사로 숲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티웨이항공



**GS더프레시-NSC, 공동 프로모션 등 협업체계 구축**

GS더프레시가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NSC)와 공동 프로모션 추진 등 상호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수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김아름 GS리테일 수산 상품기획자(오른쪽부터)와 잉에보르그 오르달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 한국 총괄 매니저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GS더프레시

**인사**

- ◆KBS △보도시사본부 선거방송기획단장 이민영 △보도시사본부 보도국[취재1] 사회부장 홍석우
- ◆한국수력원자력 ◇ 상임 이사 △기술부장 조석진 ◇ 본부장 △발전본부장 이광훈
-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전략부장 문진석 △기획부 디지털홍보팀장 송성환 △행정부 재무회계팀장 류철현

**부음**

▲방국진씨 별세, 김희선(전 국회의원)씨 남편상, 방송환-방지영씨 부친상, 양세훈씨 장인상, 최윤정씨 시부상 = 7일 오후 3시4분, 한양대병원장례식장 11호실, 발인 10일. 02-2290-9442

# 기아, '밀리노 디자인 위크' 참가... 문화교류 장 연다

**'오퍼짓 유나이티드' 재해석 필립 파레노 등 협업 작품 전시**

기아가 글로벌 아티스트들과 협업해 기아의 디자인 철학인 '오퍼짓 유나이티드(상반된 개념의 창의적 융합)'를 알리고 문화 교류의 장을 연다.

기아는 7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디자인·가구 박람회 '2025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 3년 연속 참가해 단독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63주년인 밀라노 디자인 위크는 건축, 패션, 자동차 등의 최신 문화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글로벌 디자인 전시회다.

기아는 밀라노 중심부에 위치한 아트 갤러리 '뮤제오 델라 페르마네펀테'에 전시장을 마련하고, 글로벌 아티스트들과 함께 오퍼짓 유나이티드를 재해석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세계적인 현대미술 작가인 필립 파레노와는 '마키'를 전시한다. 마키는 공중에 설치한 옛 극장간



기아가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서 전시한 더 케이브(The Cave).

판 모양의 조형물을 통해 빛과 공간의 상호작용을 보여준다. 하나의 예술 영역을 넘어 경계를 확장한 작품이다. 이는 기아 브랜드의 역동성과 '문화 선구자'로 활동하는 기아의 디자인 철학을 보여준다.

또 기아는 런던과 도쿄 기반의 아

티스트 듀오인 A.A. 무라카미와 협업해 ▲더 케이브 ▲비욘드 더 호라이즌 등 2개의 작품을 공개한다. 더 케이브는 물웅덩이를 형상화한 자동 장치와 고대 악기에서 영감을 얻은 음향을 통해 동굴 안에서 소리가 울려 퍼지는 설치미술 작품이다. 비욘드 더 호라이즌은 천장에 매달린 자동 장치에서 거품이 솟아나 거대한 구름으로 변하는 작품이다.

기아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기아의 디자인 철학이 다양한 예술 분야와 만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며, "전시장을 찾는 고객과 아티스트들이 관람을 통해 영감을 얻고 창의성을 발굴하는 시간을 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에쓰오일, 사회적 기업 1.5억 후원

**사업화 자금 등 사용 예정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

에쓰오일이 사회적 기업 지원을 통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나선다.

에쓰오일은 서울 마포 본사에서 사회적 기업 공모지원 사업 기부금 전달식을 열고 총 1억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에쓰오일의 기부금은 열매나눔재단을 통해 선발된 5개 에너지·환경 분야 사회적 기업의 사업화 자금, 팝업스토어 및 성과 공유회 지원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에쓰오일은 ESG 활동으로 혁신적인 사회적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에쓰오일 류열 사장, 열매나눔재단 이장호 대표가 8일 서울 마포 본사에서 사회적 기업 공모지원 사업 기부금 전달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쓰오일

업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 현대차, '티니핑' 협업 특별 전시

**SAMG엔터와 대규모 유스 마케팅**

현대자동차가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대통령' 캐치! 티니핑(이하 티니핑) 협업 특별 전시행사를 진행한다.

현대차는 인기 애니메이션 티니핑을 제작한 SAMG엔터와 손을 잡고 대규모 유스 마케팅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먼저 양사는 티니핑 캐릭터들과

현대차 전용 차량 캐릭터가 등장하는 10분가량의 스펀오프 필름을 제작한다.

또 내달 1일부터 한 달간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열리는 '유스 어드벤처 2025'에서도 협업 콘텐츠를 만날 수 있다. 특히 행사 첫번째 주말에는 티니핑과 함께하는 포토 타임·싱어롱 미니콘서트 등 다채로운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양성운 기자

## 동서식품, '맥심커피배' 이지현 9단 우승

동서식품은 '제26회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에서 이지현 9단(사진)이 신진서 9단을 꺾고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고 8일 밝혔다.

5년만에 맥심커피배 우승에 도전한 이지현 9단은 맥심커피배 전기 우승자인 신진서 9단을 맞아 치열한 승부를 벌였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결승 1국에



서 불계승을 거뒀으나, 결승 2국에서 패하며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어 지난 7일 진행된 결승 3국에서 팽팽한 접전 끝에 신진서 9단을 꺾고 최종 우승자가 됐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산불 피해복구 지원**

## 유한재단, 이재민 돕기 성금 2억

**"새로운 사회문제 적극 대응"**

유한재단은 최근 경상권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총 2억원의 성금을 기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대한적십자사

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각각 1억원씩 전달된다.

유한재단 김종수 이사장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사회 문제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 오스템임플란트, 성금 1억 기탁

**"빠른 일상 회복에 도움 되길"**

오스템임플란트는 잇따른 산불로 피해를 입은 영남 지역 이재민을 위해 성금 1억원을 기탁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성금은 희망브릿지 전국

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긴급 전달됐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작은 보탬이나마 상심이 큰 피해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빠른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 롯데홈쇼핑, 13일 '특별 바자회' 개최

롯데홈쇼핑은 서울시와 함께 이달 13일 서울 중구 덕수궁 돌담길 차 없는 거리에서 산불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한 '힘내세요! 돌담길 바자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이번 바

자회를 통해 약 1억원 상당의 패션·잡화 물품을 후원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50% 할인가로 판매할 예정이다.

판매 수익금 전액은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사용된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r

## 덕성여대, 재해극복장학금 마련

덕성여자대학교가 2025년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경남지역 피해 학생들을 위해 재해극복장학금을 지원키로 했다.

8일 덕성여대에 따르면, 생활

비성으로 지급되는 이번 특별장학금은 8일부터 28일까지 교내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따라 지급금액이 책정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lhj@

www.dseshop.co.kr



# “샴푸 3분만에 염색 끝”

힘든 염색은 이제 그만, 감기만 하면 염색 끝 - 세븐에이트 블랙샴푸



하루 3분, 간편하게 감기만 하세요~



샴푸하듯 간편하게, 초스피드 3분 염색  
**세븐에이트 블랙샴푸**

- 3분 염색으로 빠르게** 30분 걸리는 길고 지루한 염색시간, 단 3분이면 OK 눈시름, 두피자극, 냄새 걱정없이 빠르고 편안한 초간단 새치케어
- 유해성분 없는 건강한 새치케어** 두피와 모발 건강을 생각하는 순한 염색, 피부자극 걱정없이 염색후에도 보들보들한 머릿결 유지
- 식물 유래성분으로 건강하게** 검은깨, 흑미, 블랙베리, 블랙커런트 블랙푸드 4종, 백나무잎 특허성분에 9가지 비타 과일 추출물로 생기있는 머릿결

**NEW 세븐에이트 N 블랙샴푸**  
Quick Touch 3 Minute Black Shampoo

**DB**  
다크 브라운  
Dark Brown

**2 in 1**  
샴푸와 염색을 한번에~  
브라운으로 리턴하다.

DONGSUNG

**NEW 세븐에이트 N 블랙샴푸**  
Quick Touch 3 Minute Black Shampoo

**1 제**  
내추럴 블랙  
Natural Black

**1 제**  
다크 브라운  
Dark Brown

DONGSUNG

■ 특별 할인판매 · 색상: 내추럴블랙, 다크브라운(선택) · 제품 구성: 26회 사용분 + 전용장갑 2개 · 판매가: ₩19,933원X3(3개월 카드무이자)

상담 | 구입 문의 **080·854·0082**



# “따뜻한 한 끼로 복지 사각 메운다” ‘서울밥상’ 도시락·반찬 배달 시작

서울시, 저소득층 어르신 지원  
60세 이상 1000여 명에 매주 전달  
민간조리업체 완조리 후 기관 제공  
공공 어르신일자리 참여자들 배송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6번 출구 앞 급식소인 토마스의 집에서 자원봉사자가 배식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서울시가 급식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1000여 명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는 ‘서울밥상’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서울시는 9일부터 강서구·은평구·광진구 등 8개 자치구에서 저소득층 노인 845명을 대상으로 ‘서울밥상’ 시범서비스를 진행한다

서울시가 급식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고 어르신들에게 고른 영양의 ‘하루 한끼’를 지원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서울밥상’을 도입했다.

‘서울밥상’은 시와 계약을 맺은 민간조리업체가 대량으로 도시락과 밑반찬을 만들어 복지관 등 거점수행기관에 공급하면, 이들 기관이 어르신 댁으로 음식을 배송하는 시스템이다.

따로 공공의 조리공간이나 인력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고 민간업체에서 대량으로 식자재를 구매·조리하기 때문에 동일 비용으로 보다 고품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시는 ‘서울밥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배달플랫폼이 될 관내 복지관, 대

한노인회지회, 돌봄통합센터 등 33개소의 거점 수행기관을 선정했다. 또한 음식조리를 맡을 민간조리업체로는 지난 3월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학교, 병원 등을 대상으로 급식 서비스를 제공 중인 ㈜현대그린푸드

를 선정했다. 매주 민간조리업체에서 조리된 도시락 7일분(주 5일 배송), 밑반찬 7일분(주 2일 배송)이 전달되며 명절이나 어버이날·노인의 날 등에는 특식이 제공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부적합으로 급식을 받지 못하는 독거 어르신,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 등이다.

서울밥상은 식사 제공은 물론 도시락·반찬 배달을 기존 ‘공공어르신일자리’ 사업과 연계 진행해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외에도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식사 할 수 있도록 ‘서울마음편의점’, ‘1인가구지원센터’, ‘시니어클럽’ 등에 공간을 마련해 어르신의 고립과 외로움도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 ‘서울밥상’ 사업 참여 자치구를 추가 모집하고, 성과평가 등을 실시 후 내년에는 전체 자치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추가공간 확보 없이 안정적으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서울밥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영양가 높은 양질의 급식을 대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oul.co.kr

# 사이버대생, 언어재활사 시험 길 열렸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사이버대학교(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 학생들이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공식적으로 되찾게 됐다.

8일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원격대학에서 언어치료 관련 학위를 취득한 이들도 다시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원격대학 졸업자들이 국가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이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로 원격대학 졸업생의 응시 자격이 제한되자, 학습권 침해와 언어재활 인력 부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며 입법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원광디지털대와 대구사이버대는 작년 11월 보건복지부 앞에서 공동 집회를 열고, 원격대학 재학생과 졸업

생의 시험 응시 자격 보장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응시자격 요건에 ‘원격대학’을 명시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장 실습 과목 이수를 의무화했다.

원광디지털대 관계자는 “향후 실습 기준이 마련되는 즉시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학생들이 차질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언어재활사 인력난 해소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판결 직후 원격대학 졸업생들은 시험 접수 취소 통보를 받는 등 자격 상실 위기에 직면한 바 있으며, 일부는 이미 합격 후 활동 중인 상태여서 현장의 혼란이 컸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응시 자격이 명확히 규정되며, 발달장애·자폐스펙트럼·의사소통장애 아동 등을 위한 언어재활 서비스도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진 기자

# 고양특례시, ‘리코소일’로 도시농업에 활력

치유텃밭 조성사업 등 활용 예정

고양시가 포스코이앤씨와 손잡고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한 친환경 토양개량제 ‘리코(RE:CO)소일’을 도시농업 및 치유농업 현장에 본격 도입한다.

고양시는 지난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포스코이앤씨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원순환형 토양개량제 리코소일을 기반으로 한 기술 협력과 사회공헌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포스코이앤씨는 약 16만 리터 규모의 리코소일을 고양시에 무상 지원하며, 치유텃밭 조성사업과 시민 참여형 도시농업 프로그램 등에 이를 활용할 예정이다.

‘리코소일’은 커피박(찌꺼기) 등 생활폐기물을 원료로 삼아 개발된 토양개량제로, 포스코이앤씨와 ㈜삼화그린텍이 공동 개발했으며 지난 2월 특허를 획득했다. 현재는 포스코이앤씨 조경현장에 시범 적용 중이며, 고양시와의



이동환 고양시장(오른쪽), 박종진 포스코이앤씨 건축사업본부장(왼쪽).

협약을 통해 공공 부문으로 확대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시는 이 개량제를 활용해 7개 학교의 치유텃밭, 4개교의 ‘꿈자람 치유텃밭’, 시민 참여형 도시농업 프로그램 등에 적용하고, 관련 기술자문과 포스코이앤씨 임직원 봉사활동도 연계할 방침이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 난독·경계선지능 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

서울교육청, 253억 투입 집중 지원  
학습진단성장센터 통해 심층 진단

서울 관내 초등학교 1학년은 올해부터 1학기 한글교육을 마친 후 난독증 조사를 받게 된다. 고교 1학년은 이달 초 경계선지능 검사를 받은 뒤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이달부터 약 253억원을 투입해 학생별로 맞춤형 교육을 하는 ‘서울형 기초학력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 ◆ 촘촘한 학습안전망 구축

시교육청은 촘촘한 학습안전망 구축을 위해 학교 중심의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 내실화’를 우선 지원한다. 기초학력 책임지도 예산은 총 93억 원이다. 학교 희망 여부, 학습지원 대상 학생 수, 학교 규모 및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학교에 예산을 차등 지원한 상태로, 초등학교에는 최소 100만원에서 1100만원, 중학교는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고등학교는 100에서 600만원까지 주어졌다.

각 학교는 ▲정규수업 시간 중 협력강사 활용 협력수업 ▲방과후 교과보충 프로그램 ▲담임(교과) 교사와 함께하는 키다리샘 등 학교 여건 및 학생 상황에 맞도록 세부 프로그램을 선택해 운영할 수 있다.

수업 중 협력수업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약 8억 4000만원을 투입해 초등학교 42교, 중학교 14교 등 기초학력 맞춤형 교육 선도학교를 운영한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 및 특수요인 등의 기초학력 문제는 서울 학습진단성장센터를 통해 심층 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 ◆ 학습성장 결정적 시기 ‘집중 지원’… 방학 중에도 ‘계속 지원’

특히, 올해는 학습성장의 결정적 시기에 대한 집중 지원을 강화한다.

초·1·2학년년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읽기 유창성 프로젝트를 신규 운영하며, 중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대학생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 ‘KT와 함께하는 기초탄탄 랜선야학’도 집중 지원한다.

초·1·고1은 ‘심층진단 집중학년’으로 새롭게 운영된다. 초1의 경우, 1학년 1학기 한글교육을 마친 후 난독증 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고1을 대상으로는 4월 초 경계선지능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계선지능 역시 조기 발견이 중요하나, 생애주기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초1은 의무교육의 시작 단계로, 난독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선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고1의 경우 학습 지원은 물론 진로·진학 상담과 사회적인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시기로, 대학, 지자체 등과 연계해 고1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는 보조인력인 학습지원 튜터를 집중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올해 약 68억원을 투입한다. 초등학교의 경우 희망하는 모든 학교 512개교에 100% 지원했고, 중학교는 희망 학교의 86.6%인 168교에 지원했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4월 9일 (수)  
음력 : 3월 12일

수도권 날씨  
8 ~ 18°C

운동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빨래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세차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외출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해무 / 06:06 | 해짐 / 19:02

지역별 날씨: 연천 4/18, 동두천 5/19, 가평 4/18, 파주 4/17, 서울 8/18, 양평 6/20, 인천 8/15, 수원 6/17, 용인 6/17, 평택 4/20, 백령도 6/11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트럼프 50% 관세 위협에… 중국 “상호관세, 근거 없는 강압 행위”  
▲美 헤지펀드, 트럼프 쇼크에 안전 자산 ‘국채’ 급매 나섰다 /사진 뉴시스

▲트럼프 무역고문 “주식 시장은 현재 바닥을 찾는 노력 중”  
▲日 소프트뱅크, 내달 개인 사채 5조9800억원 발행… “사상 최대”

▲中,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화력 비축… 경희도류 제한도 가능  
▲재산 감압한 美 억만장자들, 트럼프 관세 맹비난



식품업계  
맛있고 건강하게  
'웰빙 저당' 뜬다  
니



Life

K-뷰티  
아프리카까지 진출  
新성장동력 마련  
L2



# 정보의 비대칭 깨는 'AI 보험진단'... 보험시장 판 바꾸다

## 속깊은 인터뷰

### 김창균 아이지넷 대표

보험은 오래된 산업이다. 200년 넘게 이어져온 만큼 구조와 관행이 견고하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의 물결 앞에서 그 오랜 전통도 변화의 기로에 섰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마이데이터와 같은 신기술이 보험 산업에도 본격적으로 스며들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최전선에 선 기업이 있다. 바로 인슈어테크(보험+기술) 1호 상장사 '이지넷'이다.

지난 2월 코스닥 입성에 성공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은 이지넷은 보험의 디지털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기술력과 비즈니스 모델로 독자적 입지를 다지고 있다. 김창균 대표는 이 여정의 선봉에 선 인물이다. 그는 "보험은 정보의 비대칭이 매우 심한 산업"이라며 "기술을 통해 이 구조를 바꾸고 싶었다"고 말한다. 지난 10년, 김대표가 꿈꿔온 보험의 미래는 이제 서서히 현실이 되고 있다.

#### - 이지넷은 어떤 회사인가.

"2014년 설립된 인슈어테크 스타트업이다. 2019년 인공지능 기반 보험 진단 플랫폼 '보닥'을 출시하며 B2C 시장에 본격 진입했고, 2021년에는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획득해 초개인화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후 보험대리점(GA) 시장과 기업 대상 솔루션 사업을 동시에 확대하며 빠른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 - 회사 설립 배경이 궁금하다.

"보험 산업은 오래됐지만 정보 비대칭이 심하다. 보험사는 방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만, 소비자는 그렇지 않다. 이 구조적 문제를 기술로 풀고 싶었다.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 보험 진단으로 보험사와 고객 모두에게 더 나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싶었다."

#### - 사업 모델은 어떻게 구성돼 있나.

"크게 B2C와 B2B, 두 축이다. B2C는 '보닥'을 통해 소비자에게 맞춤형 보험 상품을 추천하고, 이를 활용하는 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전체 매출의 약 85%가 이쪽에서 나온다. B2B는 우리가 개발한 AI 기반 보험 엔진을 보험사나 기업에 솔루션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3년 본격화했고, 작년에는 16억원 매출을 올렸다."

#### - 인슈어테크 시장에서 이지넷만의 강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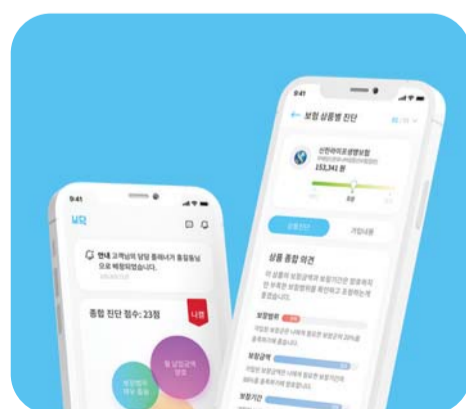
"경쟁력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데이터다. 보험 상품과 약관, 고객 가입 내역 등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매일 최신 데이터를 학습시켜 AI를 고도화한다. 둘째, 플랫폼이다. 모바일 중심의 '보닥'은 24시간 언제든 접속 가능하다. 셋째, 전문성이다. 장기인보험처럼 복잡한 상품도 디지털 환경에서 설명하고 판매할 수 있는 인력과 노하우가 있다. 이 세 가지



김창균 아이지넷 대표가 사무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지넷

“**인슈어테크 1호 상장사 '이지넷' 기술로 보험정보 비대칭 해소하고 AI 기반 보험진단 플랫폼 '보닥' 선배 데이터 기반 고객 맞춤 보험상품 추천 방대한 데이터·플랫폼·전문성 '강점' 작년 매출 233억... 전년비 80% 증가 기술력 바탕으로 2년 연속 고성장 이뤄 기술 고도화 등 투자 지속해 정밀도↑ IT 인프라 보충 등 해외시장 확대 목표**”



AI 기반 보험진단 플랫폼 '보닥'.

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진짜 경쟁력이 된다고 본다.”

#### - 지난해 실적은 어땠나.

"2024년 연결 기준 매출은 233억원, 영업이익은 3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80% 이상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모두 흑자 전환했다. 작년 목표가 220억원이었는데 초과 달성한 셈이다. 덕분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뽑은 '아시아 태평양 고성장 기업 500'에도 2년 연속 선정됐다.

올해는 AI 연구와 서비스 고도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기술 기반의 효율 개선으로 더 큰 성장을 노리고 있으며, 국내 인슈어테크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 - 올해 성장 전략은 어떻게 세웠나.

"외형 확대와 기술 고도화를 병행할 계획이다. 고객 유입을 위해 마케팅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국내 사업을 안정화시킨 뒤 베트남 진출도 준비 중이다. 현지 보험 시장은 빠르게 성장 중이지만 IT 인프라는 아직 부족하다. 이지넷이 가진 인슈어테크 역량이 통할 수 있다고 본다. 연내 성과가 목표다.

내적으로는 AI 기술을 더 정교하게 다듬고 있다. 보험 진단 정확도를 높이고, 고객 경험(CX)을 개선해 더 정밀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이다."

#### - 시장에서 위험요소는 없나.

"인구 감소로 보험 시장이 정체될 수 있다는 우려는 있다. 하지만 인터넷은행이 전통 은행 성장 둔화 속에서도 급성장했듯, 보험도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이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AI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뒤처지면 바로 도태될 수 있다. 그래서 AI 상담사 개발 등 핵심 기술 내재화에 계속 투자하고 있다. 미래 보험 시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이지넷이 그 흐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 -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나.

"10년 넘게 회사를 이끌었지만, 상장 승인이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아들 김지태 각자대표와 공동창업자, 모든 직원이 함께 만든 결과다. 감격스러웠고, 처음 창업할 때 마음이 다시 떠올랐다.

이제는 상장 기업으로서 사회와 투자자에게 책임지는 회사가 되는 게 내 소명이다. 더 큰 조직, 더 건강한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다음 과제다."

#### - 투자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상장 이후 주가가 기대만큼 오르지 않아 아쉬운 점도 있다. 하지만 결국 주가는 성과가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지넷이 꾸준히 좋은 실적을 내고, 시장과 소통을 잘한다면 주주 가치도 자연히 올라갈 거라고 믿는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시장과 소통하고, 회사의 방향성과 비전을 명확히 전달해 나갈 계획이다. 투자자들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 마지막으로 대표의 비전을 한 마디로 말한다면.

"상장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지넷은 이제 막 시리즈A 투자를 유치한 기업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 알려지고, 더 성장해야 한다. 인슈어테크 1호 상장사로서 책임감을 갖고, 좋은 기업,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

/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 메트로 한줄뉴스



▲한국 U-17 축구, 아프간에 6-0 대승...아시안컵 8강 진출하나 /사진 뉴스스  
▲안양천 일대서 6000명 달린다...12일 '양천마라톤 대회' 개최

▲완봉패 위기서 팀 구한 이정후...8경기 연속 안타 행진  
▲탁구 신유빈, 월드컵서 중국 선수들에 재도전...12일 출국

▲'쇼팽쿠르 10주년' 조성진, 6월 리사이틀...음악 여성 탐구  
▲'신선의 경지에 이른 붓놀림'...조선후기 화사의겸스님 기획전